

0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arts change the world

전사적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통계항목 개발 연구

2012. 12

전사적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통계항목 개발 연구

2012년 12월 인쇄

2012년 12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2-050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전화 02-760-4500, 600

팩스 02-760-4707

홈페이지 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전사적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통계항목 개발 연구

/ 2012. 12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전사적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통계항목 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주관기관 : 문화리서치피오

연구책임자 : 황 윤 숙 대표

연구원 : 김 도 형 실장

우 정 훈 팀장

김 경 남 연구원

임 소 아 연구원

목 차

제1장 연구배경

제1절 : 전사적자료관리시스템과 근거 기반 의사결정	
1. 공공기관의 성과와 자료관리	12
2. 근거에 기반한 정책 의사결정	13
제2절 : ARKO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개발의 필요성	
1. ARKO 내외부 주요 평가지표 현황	22
2. ARKO 주요 외부 요청 통계	26
3. 자료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 BI의 관점	34

제2장 ARKO의 주요 통계항목 설계의 방향

제1절 : 통계항목 개발 방향	38
제2절 : 통계항목 개발의 모형 : 2×2 모형	
1. 사업진행단계의 차원 : 과정 vs. 성과	39
2. 활용 목적의 차원 : 대시보드 vs. 스코어보드	41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제1절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1.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	44
2. 시각예술창작맞춤공간지원	47
3. 시각예술행사지원	50
4. 시각예술비평활성화사업지원	52
5.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54
6.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	56
7. 공연예술행사지원	59
8.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61

9.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및 기타 국제교류사업	63
10.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66
11. 노마드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69
12. 아르코문학창작기금	71
13. 우수문예지발간지원	72
14. 문학조사연구지원	73
15. 공연예술비평활성화사업지원	75
16.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	77

제2절 :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

1. 문화바우처	79
2. 사랑티켓	81
3. 소외계층문화순회	83
4. 전통나눔	85
5. 지방문예회관특별프로그램지원	87
6. 문학나눔	89
7. 공공박물관·미술관전시프로그램지원	91
8.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93
9. 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지원	95

제3절 : 기타사업

1. 아르코미술관운영	96
2. 예술인력개발원운영	98
3. 예술나눔사업	100

제4장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전산지원

제1절 : 현행 통계작성 프로세스의 문제점과 개선	
1. 현행 통계 작성 프로세스의 문제점	106
2. 외부요청 자료 작성 방식의 개선	107
제2절 : 전사적자료관리시스템 및 BI 구축 사례와 고려사항	
1. BI 솔루션 벤더의 현황 및 향후 전망	112
2. BI와 빅 데이터 분석	113
3. ARKO BI 구축 시 고려사항	114
4. BI와 빅 데이터의 활용 사례	115
5. 데이터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와 대시보드 중심의 BI	117

제1장 연구배경

제1장

연구배경

제1절 : 전사적자료관리시스템과 근거 기반 의사결정

1. 공공기관의 성과와 자료관리
2. 근거에 기반한 정책 의사결정

제2절 : ARKO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개발의 필요성

1. ARKO 내외부 주요 평가지표 현황
2. ARKO 주요 외부 요청 통계
3. 자료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 BI의 관점

제1장 연구배경

제1절 전사적자료관리시스템과 근거 기반 의사결정

1. 공공기관의 성과와 자료관리

-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의 대두와 함께 공공부문의 여러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관리가 강조되어 오고 있다. 이 배경에는 정부와 공공기관은 구조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제도가 정비되어 왔다. 과거 사업에 대한 점검 중심에서 정책 주체의 기관역량과 고객만족도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관평가제도를 1998년 도입했고, 2001년에는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¹⁾ 감사원의 성과감사, 국무조정실의 주요정책과제평가,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등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를 강화해왔다. 2006년 4월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기초한 통합국정평가가 발효되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시행되던 성과관리 및 평가가 통합되었다.
-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성과평가는 포괄적인 평가방식으로 정책을 포함한 정부업무 내용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평가도 함께 수행한다. 사실상 정부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 순위를 정하는, 기관평가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평가실태를 분석해 보면, 정책의 결과보다 정책집행 현황에 더 관심을 집중하고, 계량적인 방법보다 질적 평가방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²⁾ 평가목적과 관계없이 평가방법이 일률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평가마다 지표가 중복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하고, 평가 자체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 이러한 정부 주도의 평가 외에도 매년 진행되는 국회의 국정감사처럼 공공기관 경영 일반이나 특정 사업의 성과나 현황에 대해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 또한 매우 방대하다. 이러한 외부적인 수요와 별개로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도입해 성과를 점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1) 이윤식, (2006)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평가방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3호

2) 이윤식, (2006)

제1장 연구배경

- 결과적으로 한 기관 또는 사업에 대해서 활용 자료의 성격, 자료가 요구되는 시점, 보고의 형태, 활용 방안 등에서 연중 수많은 현황 파악과 측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이러한 자료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평가업무를 전담하거나, 외부 자료 요청의 채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도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한두 명의 담당자가 기관 내 정보를 취합해 보고하는 형태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사적자료관리시스템(Electronic Database Management System)의 전략적 활용은 여러 방안 중에서도 매우 유용한 접근으로 평가된다.
- 전사적자료관리시스템은 기존의 전자문서시스템(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system) 뿐만 아니라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데이터 마이닝, 인터넷 등의 기술을 이용해 종래의 비효율적인 정보관리 체계를 표준화, 시스템화함으로써 최종 사용자의 정보·지식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보기반 구조를 말한다. 특히 최근엔 이메일, 동영상 자료, 개별 보고서 등 비정형화된 자료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업무 혁신에 있어 전사적자료관리시스템의 도입이 점차 비중을 더해가고 있다.
- 전사적자료관리시스템은 ① 조직 내 정보의 전사적인 공유·활용, ② 개별 직원의 업무 생산성 지원, ③ 대용량 정보의 안정적 관리, ④ 문서의 버전관리 및 체계적 반입과 반출, ⑤ 보안, ⑥ 검색 등의 주요 기능을 갖는 EDM(Electronic Document Management) 시스템, 비정형 서류(종이문서, 사진, 도면 등)를 스캐너를 통해 전자 문서로 변환해 저장, 검색, 분배할 수 있는 이미징(Imaging) 시스템, 정형화된 전산 자료들을 대용량의 광디스크 저장장치를 이용해 수록, 저장, 전송, 검색할 수 있는 COLD(Computer Output Laser Disk) 시스템, 조직 내 과업(task)이 모여서 미리 정해진 업무 규칙에 따라 함께 업무 프로세스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워크 플로우(Workflow)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성 외에 전사적자료관리시스템으로부터 각기 다른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현황과 통계를 실시간으로, 유연하게 추출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갖추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제1장 연구배경

2. 근거에 기반한 정책 의사결정

- 본 연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사적자료관리시스템 도입에 앞서 전사적자료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야 할 자료와 그 자료로부터 추출되어야 하는 주요한 통계항목을 개발하는데 있어, EBP(Evidence-Based Policy)를 핵심적인 관점으로 취하려 한다.
-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근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EBP(evidence-based policy)라는 용어가 널리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였다. EBP는 “최선의 가용한 근거를 정책개발과 실행의 중심에 둠으로써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접근”³⁾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후반 부터 EBP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UN과 산하기구의 가이드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 EBP에 배치되는 개념은 ‘견해에 기반한 정책 결정(opinion-based policy, OBP)’이다. OBP는 이념, 편견, 막연한 추측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개인·집단의 검증되지 않은 견해에 의존한다. 행여 근거를 사용하더라도 매우 자의적으로 활용한다(예를 들면, 설문질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채 설문조사에만 의존하기가 쉽다).
- 많은 정부와 관련 조직들이 OBP에서 EBP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실제 EBP를 구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조직의 전문적 역량(technical capacity)과 정책 환경(policy environment)이 모두 우호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적 역량은 근거를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이에 대한 집계·리뷰를 진행하거나, 설문조·면접조사, 시범 연구(pilot study), 전문가 평가 등을 디자인하고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역량을 말한다. 물론, 이러한 역량은 조직 내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세부적인 가이드라인만 기능한다면, 아웃소싱 또한 포함될 수 있다. 정책 환경은 정치적 환경, 정책의 역사적 배경, 자원, 다양한 층위의 여론 등을 포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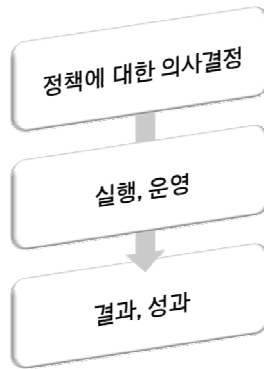
3) Davies, H.T.O., Nutley, S.M. and Smith, P.C. (Eds), (2000), What works? Evidence-based Policy and Practice in Public Services, UK.

제1장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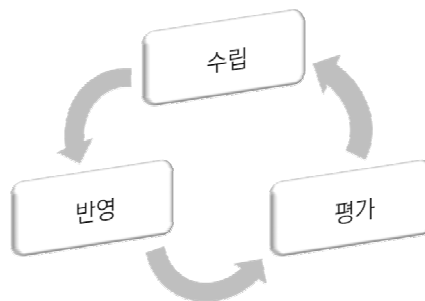


- 조직 안팎에서 전문적인 역량이 부족하거나, 정책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으면 EBP를 구현하긴 어렵다. 이 중 어느 한 측면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엔 중간적인 단계로 EIP(evidence-influenced policy)를 말하기도 한다.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거를 ‘활용’ 하고는 있는 단계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 EBP를 이야기하는 빈도가 늘어난 것에 비해 국내에서 아직 EBP의 전체적인 짜임을 살핀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EBP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정부의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주된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단위 사업의 맥락에 적용해 혼란의 여지를 줄여서 이를 살펴보고, 대략적인 모형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책 단위와 마찬가지로 개별 사업에 있어서도 일의 흐름은 사업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에서 실행을 거쳐 성과에 이르는 순으로 진행된다.

제1장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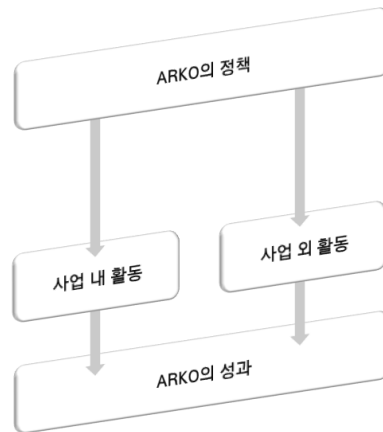


- 의사결정 단계에서는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제 반영한 뒤에 평가하는 사이클이 있다. 이 과정이 의사결정 단계에서만 맴돌지 않고 전체 사업 과정에 적용되도록 하는 일이 EBP가 취하는 접근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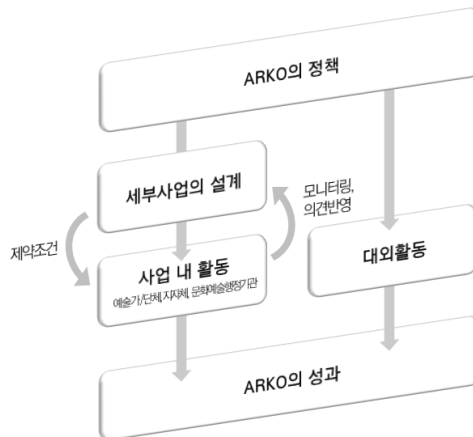


- 이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로 한정지어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은 위원회의 사업 내적인 활동과 사업 외적인 활동에 반영되고 두 활동이 함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성과를 만든다. 사업 내적인 활동이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모든 단위 사업의 활동을 말한다. 사업 외적인 활동은 정부, 언론, 문화예술계, 일반 시민의 지원과 지지 확보를 위한 일들이다.

제1장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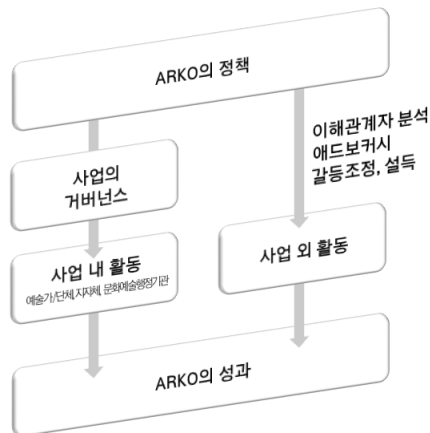


- 사업 내적인 활동은 정책을 반영해 마련된 단위 사업의 구성, 짜임에 제약을 받는다. 지원 규모와 방법, 심의 제도, 일정, 제도의 신설과 폐지 등과 같은 세부적인 요소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임직원은 물론, 단위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가·단체, 지자체, 문화예술관련기관 등에게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제공하게 된다. EBP에 따르면 이 때, 사업 내적인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여러 의견과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정책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구성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의 거버넌스(governance)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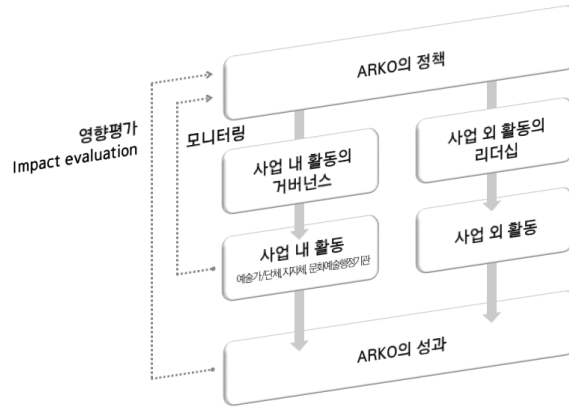
제1장 연구배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이 사업 외적인 활동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단위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살피고, 폭넓은 의미의 애드보커시(advocacy) 활동을 통해 그들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는 한정된 자원이나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한 다양한 갈등들이 빚어지기 마련이고, 설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노력이 매우 긴요해 진다. 이는 모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리더십(leadership)에 해당되는 활동이다. 이때 리더십은 어느 한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 주체가 사업과 관련된 환경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역량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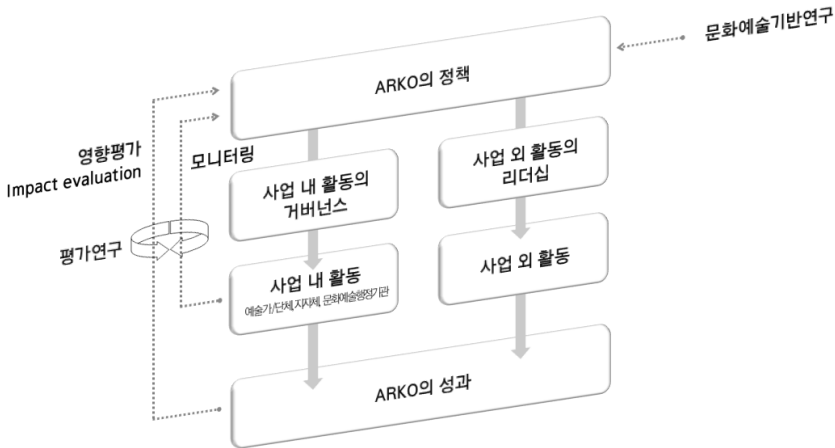
- 거버넌스와 리더십에 바탕을 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 내·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1차적인 산물인 산출(output)이 빚어지고, 이를 통해 결과(outcome)의 달성 여부를 살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으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장기적인 행태 변화, 환경적·문화적 변화에 해당되는 영향(impact)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평가가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이다.

제1장 연구배경



- 일반적으로 평가 연구에는 사업 내적인 활동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과정 평가)과 결과 단계에 바탕을 둔 성과-영향평가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여건과 필요에 따라 어느 한 쪽에 집중하기도 하고, 적절히 안배를 하기도 한다. 자체적인 평가·모니터링만이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외부에서 진행되는 평가 성격의 모든 활동들 또한 마찬가지다. 이 밖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활동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조사·연구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근거로 활용할 수가 있다. 2012년부터 부터 함께 시행되는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와 문화향수실태조사, 또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연예술실태조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위한 EBP 모형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말하자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EBP를 적용한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모형에 바탕을 두고 모든 사업의 프로세스를 설계한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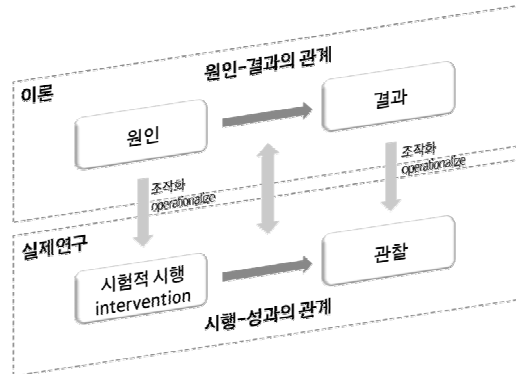
제1장 연구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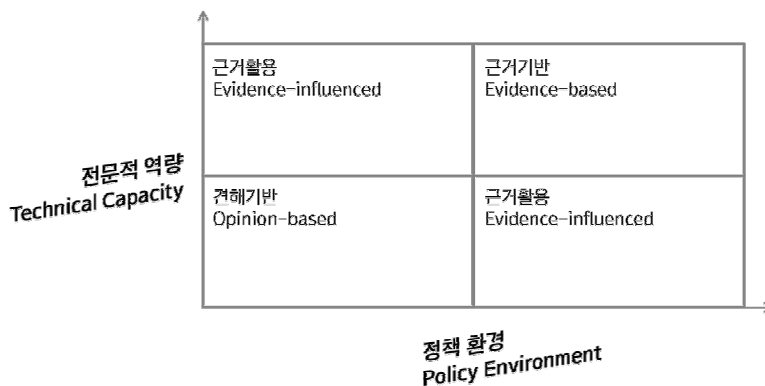
- 이에 덧붙여 EBP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한 가지가 체계적으로 시험적 시행 (intervention)을 시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위의 평가·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히 관찰해 내는 일이다. 이는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확보할 때, 그 방법을 인과관계의 틀 내에서 찾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종래의 느슨한 평가의 틀을 벗어나 실험적 평가법이나 준실험적 평가법을 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 연구에서의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정책적 개입과 결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엄격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접근은 대폭적인 정책의 변화보다는 소폭의 세부적인 수정을 통해 점진적인 개선을 꾀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EBP와 관련된 많은 논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위의 모형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업 프로세스에 구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개입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살피는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온전한 의미의 EBP라고 보기 어렵다.⁴⁾

4)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단계를 EIP(Evidence-influenced Policy)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연구배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사적자료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사전 통계항목을 개발하는 일은 앞서 언급된 정책 환경과 전문적 역량의 매트릭스 구조에서 조직의 전문적 역량을 높이는 방향의 접근에 해당한다. 기존의 접근이 견해에 기반했거나, 근거를 부분적으로만 활용했었다면 전사적자료관리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향후 근거에 바탕을 둔 형태의 사업 계획 수립과 전개가 가능해지길 바라는 기대가 담겨져 있다.



제1장 연구배경

제2절 ARKO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개발의 필요성

1. ARKO 내외부 주요 평가지표 현황

- 정부 주관의 성과지표는 도입 목적이 해당 부처의 관점에 따른 사업 평가를 위한 것인 만큼, 뚜렷한 평가 목적과 쓰임을 염두에 두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측정이 용이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지표를 개발할 때는 공익성과 수익성, 조직의 특수성과 형평성, 계량과 비계량, 단순화와 세분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등의 모든 관점들을 동시에 고민해야 할 수 밖에 없다. 그만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계량 지표와 비계량 지표의 구분이다.
- 계량 지표는 정교하고 대부분 자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꼽는다. 일반 기업의 경우라면 매출액이나 순수익률처럼 대부분 업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계량 지표는 평가 과정도 상대적으로 단순할 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든 이들과의 공유도 쉽다. 물론 ‘고객만족도’ 처럼 자연스럽게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은 아니지만 조사를 통해 계량지표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고객만족도는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만족도에 대한 등급을 파악하고 계량화된 수치로 전환해서 만든 계량지표다. 보다 구체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 비계량적인 환경을 계량적인 여건으로 전환시킨 경우다. 계량 지표는 상대적으로 객관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고객만족도처럼 측정 방법을 설계해야 하는 경우에는 약간 달라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단순한 숫자 비교가 가능하다.
- 비계량적인 지표는 주관적인 평가나 질적인 판단에 의해 결론이 도출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업무성과와 노력을 평가위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물론 주관적으로 평가해도 최종적으로 등급을 매긴다는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평가위원의 철학과 감각에 따라 같은 사안도 얼마든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비계량적인 지표의 장점은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관적인 의견을 반영한 탓에 많은 사람들이 평가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1장 연구배경

- 서구 국가의 경우 평가위원을 믿는 비계량적인 평가에 강하다면, 우리나라에서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미국 대학은 강의, 연구, 봉사의 세 가지 범주로 정해 놓고 평가위원이 면담을 통해 피평가자의 등급을 매기고 합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논문, 책, 외부 활동 등에 각각 점수를 부여해 그 점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한다. 거의 모든 사항을 계량 지표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평가위원과 평가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비계량적인 평가에 이어질 수 있는 논란과 잡음을 피하고 싶다는 동기도 많이 작용하는 듯하다. 인정에 약한 국민 정서를 감안해 평가위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계량 지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보니 계량적인 수치에 급급해 그 수치에 숨어 있는 질적인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
- 이렇듯 계량 지표 일변도의 평가 경향은 장기적으로는 극복의 대상이긴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적응해야 할 환경이기도 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관의 성격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통계 항목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감하고 있는 정부 주관 평가는 2012년 현재 총 12개에 이른다. 이 중 구체적인 사업 성과와의 연관성이 낮은 ‘공공기관청렴도측정(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상임감사 직무평가(기획재정부 주관)’ 등의 3개 평가를 제외하면 총 9개의 평가가 직간접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 성과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제1장 연구배경

연번	평가명	주기	주관기관	주관부서
1	경영실적평가	1년	기획재정부	정책기획부
2	기금운용실적평가	1년	기획재정부	예술나눔부
3	고객만족도조사(PCSI)	1년	기획재정부	사업평가부
4	기금운용평가(기금존치평가)	3년	기획재정부	사업평가부
5	보조사업운용평가(사업존치평가)	1년	기획재정부	사업평가부
6	재정사업자율평가	3년	기획재정부	사업평가부
7	복권기금사업평가	1년	기획재정부	문화복지부
8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	1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평가부
9	정부업무평가	1년	국무총리실	사업평가부

- 9개의 평가 중 7개의 평가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경영실적평가’, ‘기금운용실적평가’, ‘복권기금사업평가’ 등 3개 평가를 제외한 6개의 평가를 사업평가부가 전담하고 있다.
- 경영실적평가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리더십·책임경영’, ‘경영효율’, ‘주요사업’의 3개 평가범주 내에 21개 지표(2009년 26개, 2010년 25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표는 ‘9등급 평가’ 또는 ‘목표부여’ 방식으로 평가됨으로써 계량화 된다. 본 연구와 관련된 평가범주인 ‘주요사업’은 ‘예술인창작활동신장사업’, ‘생활속의예술활성화사업’, ‘지역문예진흥지원사업’, ‘예술의사회적제고가치제고사업’의 네 개 구분에 따라 각기 2개씩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사업별 1개 지표가 사업의 성과와 연관되어 있다. ‘예술인창작활동신장사업’은 ‘지원예술단체의 활동수준’, ‘생활속의예술활성화사업’은 ‘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수’, ‘지역문예진흥지원사업’은 ‘비수도권 지역 예술지원프로그램 참여관객 비율’, ‘예술의사회적제고가치제고사업’은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유치실적’을 측정하고 목표부여 방식에 따라 평가한다.
- 공공기관고객만족도조사(PCSI)라고 불리는 고객만족도조사는 ‘금융지원(80개 문항)’, ‘문화시설 및 관리(32개 문항)’, ‘교육훈련 서비스(74개 문항)’의 세 사업 분야에 대해서 12개 요소별로 총 186개 문항을 사용한다. 각 사업분야별

제1장 연구배경

고객의 ‘만족도’ 라는 단일 지표를 산출해 내기 위한 문항들이지만, 추후 관리를 위해 12개 요소에 대한 점수결과 수준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2011년 ‘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사업’,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사업’,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사업’, ‘문화예술사회적 인식제고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처음 시행된 보조사업운용평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중 선별된 보조사업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된 보조사업평가단이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의 집행률, 중복성, 사업의 외부성 등이 중요한 평가 요인이 되므로, 구체적인 현황 및 통계에 대한 의존이 크진 않으나 애드보커시의 차원에서 사업의 성과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체적인 성과 지표나 통계를 개발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재정사업자율평가는 2011년 기준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문화예술공간운영’, ‘생활속예술의활성화’, ‘예술의사회적가치제고’ 등 네 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진행된다. 경영실적평가의 ‘주요사업’ 부문과 동일하다. 다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재정사업의 1/3씩 3년 주기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므로 주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 복권기금사업평가는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전통나눔사업’, ‘지방문화회관공연프로그램지원사업’, ‘공공박물관미술관특별전시프로그램지원사업’, ‘문화나눔사업’, ‘문화바우처사업’, ‘사랑티켓사업’, ‘장애인문화예술역량강화사업’, ‘생활문화공동체사업’ 등 총 9개 세부 사업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평가모형에 따른 별도의 평가용역을 통해서 진행되어오고 있다.
- 문예진흥기금사업평가는 ‘전략추진체계’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문화예술공간운영’, ‘생활속의예술활성화’, ‘지역문화예술진흥’, ‘예술의사회적가치제고’ 등 5개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 국무총리실이 주관해 부처별 과제를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는 문화부 전체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연관된 관리과제는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문화예술공간운영’, ‘지역문화예술의진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정보화’ 등 네 가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연구배경

2. ARKO 주요 외부 요청 통계

- 대내외적인 필요성에 의해 진행되는 다양한 평가 외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계의 생성은 매우 빈번하고,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 중 외부적인 모니터링 성격의 자료 요청 중 가장 광범위한 것이 국정감사 시에 국회로부터 요청되는 자료들이다.

자료요청시기	요청자료건수	비율
7월	137	25.9%
8월	322	61.0%
9월	69	13.1%
계	528	100%

- 2009년~2011년의 3개년 간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요청된 자료의 건수는 2009년 869건, 2010년 987건, 2011년 528건에 이른다. 1개건이라 하더라도 매우 광범위한 형태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국정조사를 앞두고나 진행 중인 7~9월 중 집중되는 만큼, 이에 대한 행정적 소요는 꽤 큰 규모다.

제1장 연구배경

요청자료구분(2009년)	빈도	비율
경영일반	710	81.7%
문예진흥기금 일반	78	9.0%
문예진흥기금-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	0.2%
문예진흥기금-아르코문학창작기금	3	0.3%
복권기금 일반	6	0.7%
복권기금-공공박물관미술관전시프로그램지원	3	0.3%
복권기금 전통나눔	1	0.1%
복권기금-공공박물관 미술관 전시프로그램지원	2	0.2%
복권기금-문화바우처	4	0.5%
복권기금-사랑티켓	13	1.5%
복권기금-소외계층문화순회	11	1.3%
복권기금-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지원	1	0.1%
문화바우처	13	1.5%
기브티켓	6	0.7%
남북및재외동포교류활동지원	2	0.2%
농어촌특화프로그램사업	2	0.2%
대학로복합공연장	7	0.8%
무대예술전문교육사업	2	0.2%
아르코미술관운영	2	0.2%
지역문화예술특화사업	1	0.1%
계	869	100.0%

- 2009년의 경우 요청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 경영 일반에 해당되는 통계나 현황이 8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문예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이 각각 9.6%, 4.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세 항목에 해당되는 요청자료가 전체 요청 자료의 96%에 이른다. 경영 일반에 해당 되는 기관 통계에는 내부 인사 관련자료, 이사회 운영 등 기관 운영에 대한 자료, 감사, 민원 등에 대한 자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제1장 연구배경

요청자료구분(2010년)	빈도	비율
경영 일반	772	78.2%
문예진흥기금 일반	90	9.1%
문예진흥기금-공연예술창작기금, 문학창작기금	3	0.3%
문예진흥기금-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사업	1	0.1%
문예진흥기금-공연예술창작지원	3	0.3%
문예진흥기금-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2	0.2%
문예진흥기금-레지던스프로그램	2	0.2%
복권기금 일반	11	1.1%
복권기금-문화바우처	11	1.1%
복권기금-사랑티켓	3	0.3%
복권기금-소외계층문화순회	6	0.6%
복권기금-지방문화회관프로그램지원	1	0.1%
복권기금-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지원사업	1	0.1%
문화나눔추진단 사업	1	0.1%
문화향수사업	1	0.1%
사회적취약계층예술지원사업	1	0.1%
수용자들을위한문화관람할인	1	0.1%
공연예술전문단체집중육성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1	0.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3	0.3%
기업과예술	2	0.2%
나눔추진단사업	1	0.1%
다문화가정지원	1	0.1%
대학로복합문화공간	35	3.5%
대학로 연극단체지원사업	1	0.1%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2	0.2%
문예연감	1	0.1%
신진예술가지원	1	0.1%
아르코미술관운영	5	0.5%

제1장 연구배경

요청자료구분(2010년)	빈도	비율
예술인력개발원운영	4	0.4%
예술인사랑방	1	0.1%
원로문예인복지지원사업	1	0.1%
정기공모사업	1	0.1%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6	0.6%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	6	0.6%
지역협력형사업	3	0.3%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사업	1	0.1%
창작매개활동지원	1	0.1%
계	987	100.0%

- 2010년에도 경영 일반에 해당되는 기관 통계 관련 항목이 7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하지만, 특정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이 200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제1장 연구배경

요청자료구분(2011년)	빈도	비율
경영 일반	435	82.4%
문예진흥기금 일반	40	7.6%
문예진흥기금-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1	0.2%
문예진흥기금-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1	0.2%
복권기금 일반	6	1.1%
복권기금-문화바우처	12	2.3%
복권기금-사랑티켓	1	0.2%
복권기금-소외계층문화순회	5	0.9%
복권기금-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지원	2	0.4%
복권기금-전통나눔	2	0.4%
복권기금-지방문예회관특별프로그램지원	1	0.2%
문화나눔포털구축사업	1	0.2%
문화예술이미지제고사업	1	0.2%
공연장상주단체운영지원사업	4	0.8%
기업과예술	2	0.4%
기타 창작지원사업	1	0.2%
사회적취약계층 예술지원사업	1	0.2%
아르코미술관운영	2	0.4%
영아트프론티어지원사업	1	0.2%
예술가의집	1	0.2%
예술인사랑나눔 자선경매	1	0.2%
원로문예인 복지지원 사업	1	0.2%
재외동포 거점지업 예술강사 파견사업	1	0.2%
전국문예회관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1	0.2%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1	0.2%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1	0.2%
차세대 예술인력 집중육성 사업	1	0.2%
한국현대예술해의소개	1	0.2%
계	5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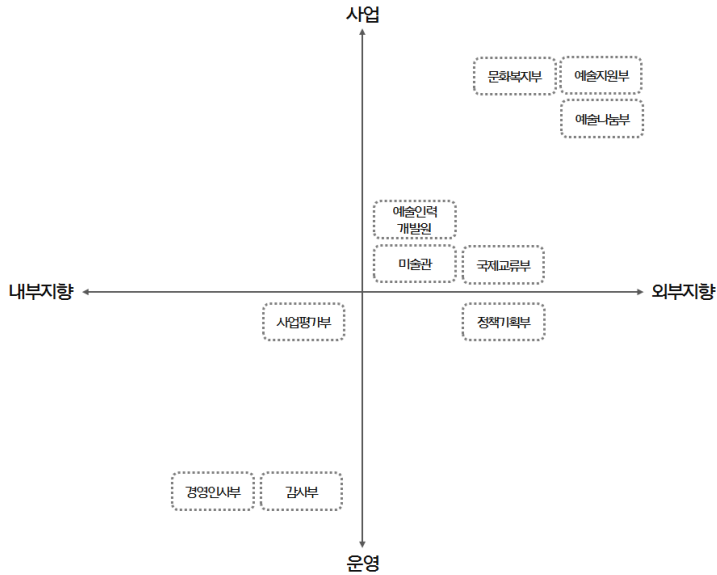
제1장 연구배경

-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자료요청은 10.2%로 2009년도와 유사하고, 복권기금에 대한 자료 요청은 3.3%로 2009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경영 일반 및 양 기금에 대한 자료 요청의 비중은 91.7%로 2009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 전체적으로 자료 요청 건수가 이전에 비해 감소한 2011년도도 경영 일반에 대한 기관 통계 및 자료 요청의 비중이 82.4%로 가장 높다. 문예진흥기금이 8%, 복권기금 관련이 5.5%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관심은 다소 감소한 반면, 복권기금 관련 요청 자료의 비중이 증가했다.
-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자료들이 요청되는 방식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유하는 경우보다 문화예술위원회에 직접 요청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자료요청방식	빈도	비율
주무부처 경유	174	33.0%
문예위에 직접 요청	354	67.0%
계	528	100.0%

- 국회 요청 자료에서 요청되는 통계 자료는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기관 통계 성격이 대부분이고, 특정 사업에 대한 요청 자료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는 특징이 있다. 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는 인사, 급여, 조직 운영, 예결산에 대한 자료 요청이 대부분이다. 기관 관련 통계 항목 중 반복되는 내용은 항목 자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보다는 현재 ERP 상에서 국회에서 빈번히 요구되는 자료유형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금 자체에 대한 요청 자료는 대부분 지원의 배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지원 현황에 대한 통일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3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1장 연구배경



- 이러한 접근을 취할 경우 사업부서별 업무 분장과 특성에 따라, 관련 자원과 이용자 권한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연구배경



- 이와 별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별로 자체적인 만족도 조사나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기 보다는 각 사업별로 관리·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통계 항목이나 그 통계의 산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범주들을 각 사업별로 제안하는 접근을 취하려 한다.

제1장 연구배경

3. 자료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 BI의 관점

- 경쟁시장 환경에서 축적한 대량의 데이터를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정확히 분석·예측하는 능력은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민간 경영부문에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란 EUQR(최종사용 질의와 보고 : End User Query and Reporting)을 포괄하는 의미로 1989년 가트너의 분석가인 하워드 드레스너(Howard Dresner)가 제안한 개념이다. “정보화되고 진전된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액세스, 탐색, 분석하는 능력”으로 여겼던 초기의 제안은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의 접근, 가공, 적절한 분석 기능을 관리자와 분석가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아키텍처, 도구, 데이터베이스, 분석도구, 응용시스템, 방법론을 포괄하는 용어⁵⁾”로 성장했다. 말하자면, BI는 업무시스템 등으로 축적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 분배, 변형, 추출 등의 분석 작업을 통해 기업·조직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ERP나 CRM으로 부터 얻어진 데이터의 분석을 별도의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고, 의사결정자나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경영계획이나 기업전략에 활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 이제까지 BI 시스템이라고 하면 필요로 하는 분석항목을 선택해 질의하고, 질의를 통해 정보를 얻는 데이터웨어하우스(DW), 다차원 분석을 위한 OLAP(On Line Analytical Processing), 시스템으로 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ETL(Extract, Transform, Load), 전사적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공급망관리(SCM) 등을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패턴 분석을 넘어서, 더 나은 의사결정과 사업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기 위한 영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기업성과관리(EPM) 영역에 속하는 전략관리, 경영계획, 수익성분석, 연결회계 등의 애플리케이션과 위험규제관리(GRC, Governance, Risk, Compliance) 영역에 속하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두 BI 영역에서 발전해 가고 있다.

5) Turban, E., Sharda, R., Aronson, J. & King, D. (2007) Business Intelligence, Prentice Hall

제1장 연구배경

구성	내용	구성요소
전략 인텔리전스	경영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동인 관리, 경영성과 관리, 전략 실행 모니터링, 원가 및 수익성 등에 대한 분석 정보 제공	가치경영(VBM), 성과관리(BSC), 활동원가 및 수익성 관리(ABC/ABM)
분석 인텔리전스	특정 이슈의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의사결정 모델부터 업무기능의 영역별 보고서 및 조회를 위한 기능까지, 분석을 위한 다양한 정보의 생성 및 제공	OLAP, 데이터마이닝, 전문화된 의사결정분석도구
확장 인텔리전스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고객, 공급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운영 프로세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보 제공	CRM 인텔리전스, SCM 인텔리전스
인텔리전스 인프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및 데이터 통합기반 제공	ETL 데이터웨어하우스, 데이터마트
인텔리전스 정보전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 생성된 정보를 사용자의 요구에 맞도록 제공	전사포털, 자동경보솔루션

-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구체적인 BI 솔루션을 연관된 구성요소로 나누어 보면, 전략 인텔리전스, 분석 인텔리전스, 확장 인텔리전스, 인텔리전스 인프라, 인텔리전스 정보전달의 다섯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⁶⁾ 전사적 성과관리(CPM, Corporate Performance Management)나 비즈니스 성과관리(BPM, Business Performance Management)와 같은 개념도 등장하고 있으나, BI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인다.

6) 김재경, 이주연, 박상곤 (2004)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그마인닷컴

제1장 연구배경

- 빅데이터에 대한 논의,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증가 등으로 BI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ERP를 도입해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정형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접근, 가공, 분석, 공유를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비영리 부문이나 공공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SOA, 웹 2.0, 모바일 2.0, 엔터프라이즈 2.0 등 보다 사용이 용이한 BI 2.0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인 진화는 상대적으로 BI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던 비영리, 공공 부문에 보다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장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별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통계항목들을 제안, 검토한 뒤 이를 BI를 통해 구현할 경우 여러 고려사항과 제안, 유의점을 4장에서 이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제2장 ARKO 주요 통계항목 설계의 방향

제2장

ARKO의 주요 통계항목 설계의 방향

제1절 : 통계항목 개발 방향

제2절 : 통계항목 개발의 모형 : 2×2 모형

1. 사업진행단계의 차원 : 과정 vs. 성과
2. 활용 목적의 차원 : 대시보드 vs. 스코어보드

제2장 ARKO 주요 통계항목 설계의 방향

제1절 통계항목 개발 방향

-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지표나 관련 통계를 범주화하는 틀은 사업의 전 과정과 영역을 폭넓게 조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업을 프로세스 단계별로 나누고 각 프로세스별로 업무영역을 분할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그 때문이다.
- 이처럼 정형화된 성과지표체계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하나의 동일한 틀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 흔히 사용된다. 동일한 기준에 의거해 여러 사업을 단일하게 정리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개의 사업이 갖는 특성이 부각되지 못할 뿐더러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개선안을 도출하거나, 다양한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 특히 내외부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평가에 포함된 지표들은 중앙·지방 정부의 관심과 목적에서 진행되어 온 까닭에 이러한 문제점이 좀체 부각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사업평가에는 평가의 실질적인 주체인 정부의 관심만이 반영되고, 평가의 대상의 수요와 관심, 그리고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논의는 미흡해졌다. 평가는 평가일 뿐, 사업의 계획과 집행에 있어 중요한 의사결정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 본 연구에서는 외부의 사업평가 방향이나, 외부 요청자료의 관심을 포괄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얼마 간 극복할 수 있는 통계항목들을 개발하기 위해 개발을 위한 이론적인 공간을 2차원으로 범주화하려 한다.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업 프로세스의 차원이고, 두 번째는 활용 목적의 차원이다. 모든 통계항목의 개발은 이 두 차원에 걸쳐 자리 매김 된다.

제2장 ARKO 주요 통계항목 설계의 방향

제2절 통계항목 개발의 모형 : 2×2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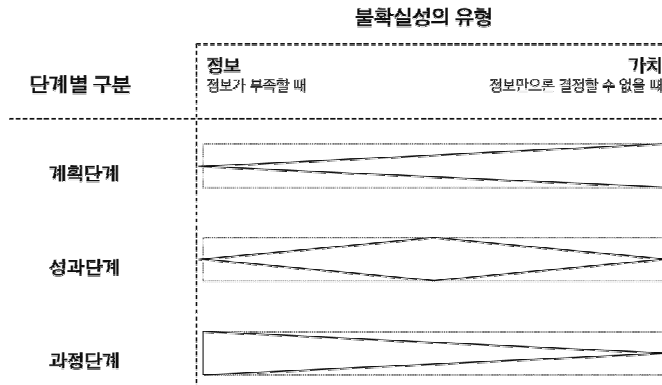
1. 사업진행단계의 차원 : 과정 vs. 성과

- 정부 주관의 성과지표는 도입 목적이 해당 부처의 관점에 따른 사업 평가를 위한 것인 만큼, 뚜렷한 평가 목적과 쓰임을 염두에 두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측정이 용이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 통계항목이 위치하는 이론적인 공간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은 사업 프로세스 상의 단계다. ‘계획-과정-성과’의 세 단계로 나누어 사업 평가지표를 반영하는 방식은 2005년부터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⁷⁾ 방식을 벤치마킹해 진행되고 있는 체크리스트 방식의 자율평가인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틀이기도 하다.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소관 재정 사업을 매년 1/3씩 3년 주기로 평가한 결과를 재정당국이 예산심사에 활용하는 제도로, 12개의 공통질문과 사업유형별 1~개의 추가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획’ 단계에는 사업목적의 명확성, 중복사업의 여부, 사업추진 방식의 효율성과 같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지표와 성과지표와 사업목적의 인과관계, 성과지표 목표치의 의욕적 설정 등과 같은 성과계획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 단계는 재원의 계획대비 집행 준수율, 모니터링 체계 운영 여부, 사업평가 실시 여부 등이, ‘성과/환류’ 단계에서는 목표치 달성 여부,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제고 사례 여부, 사업구조개선에 환류 여부 등의 지표가 포함된다.
- 본 연구에서는 이중 사업목적이나 계획의 명확성,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계획 단계를 생략하고 과정 단계와 성과 단계만으로 성과지표를 구성한다. 사업의 장기적인 효과에 관심을 두는 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실무적 모니터링과 애드보커시에 활용할 수 있는 계량 중심의 지표에 초점을 두는 만큼, 불확실성의 원인이 대부분 정보(information)가 아닌 가치(value)에 달려있는 계획 단계의 지표를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무적인 관련성, 활용도가 높고, 계량적인 정보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과정 단계와 성과 단계에 집중하

7) 1993년 도입된 성과지표 중심의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체제가 예산 계획 수립과 연계에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미 예산처(OMB)의 주도로 2002년부터 도입된 평가 방식. 각 부처가 5년 주기로 모든 사업을 자체 평가하고, 예산처가 그 평가결과를 점검 후 예산 편성에 활용한다.

제2장 ARKO 주요 통계항목 설계의 방향

는 것이 더 유용하다. 앞서 논의한 EBP(evidence-based policy)에서도 이와 유사한 까닭으로 사실상 계획 단계를 생략하고 과정과 성과 단계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것을 볼 수 있다.



제2장 ARKO 주요 통계항목 설계의 방향

2. 활용 목적의 차원 : 대시보드 vs. 스코어보드

- 자체적인 모니터링이나 내외부 평가 결과의 활용은 ‘결과의 환류’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실제 사업의 수행에 있어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내외부의 평가 결과가 사업의 계획·집행과 유리되는 원인 중 한 가지는 지표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사적자료관리시스템을 위한 주요 통계항목을 범주화하는 두 번째 차원은 대시보드(dashboard)에 사용될 통계항목과 스코어보드(scoreboard)에 사용될 통계항목을 구분하는 것이다. 해당 통계항목이 자동차 계기판처럼 사업 실무자들과나 주요 의사결정자들로 하여금 사업을 잘 ‘운전’해가고 있는지 실시간에 가깝게 점검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올림픽에 출전한 운동선수의 최종 기록처럼 성과를 가늠하는 데 활용되는 것인지에 따른 구분이다. 대부분의 외부 평가는 스코어보드로서 기능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 담당자들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순발력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쓰임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단위 사업별 통계항목 개발은 디자인 단계부터 이러한 활용의 여지를 고려해 대시보드에 활용될 지표와 스코어보드에 활용될 지표의 필요에 따라 고르게 활용될 수 있는 통계항목의 기본 집합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통계항목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취합되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통계항목 자체가 이미 대시보드나 스코어보드 어느 한 쪽으로 활용되기 쉬운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통계항목들은 사업과정과 성과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의 자료 분석이 가능토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제1절 :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1.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
2.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3. 시각예술행사지원
4. 시각예술비평활성화사업지원
5.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6.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
7. 공연예술행사지원
8.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9.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및 기타 국제교류사업
10.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11. 노마드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12. 아르코문학창작기금
13. 우수문예지발간지원
14. 문학조사연구지원
15. 공연예술비평활성화사업지원
16.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

제2절 : 복권기금 문화나눔 사업

1. 문화바우처
2. 사랑티켓
3. 소외계층문화순회
4. 전통나눔
5. 지방문예회관
6. 문학나눔
7. 공공박물관·미술관전시프로그램지원
8.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9. 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지원

제3절 : 기타 사업

1. 아르코미술관운영
2. 예술인력개발원운영
3. 예술나눔사업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제1절 문예기금 공모사업

1.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

구분			통계항목
지원수혜자관련			지원년도, 지원금액, 공간규모(단위표준화), 공간위치(17개시도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수준), 운영특성(창작 중심, 네트워크 중심, 기타), 공간운영주체구분(이는 지원수혜단체 자료를 기반으로 범주화), 국제 교류포함여부 등
사업 관련	창작	단기	집필공간을 지원받은 작가의 수, 표준화된 만족도 조사 점수(지원수혜 단체의 만족도, 작가의 만족도)
		예비	집필 지원 중 작성된 작품에 대한 정보(출간 또는 발표 여부, 장르 등), 해당 작품의 성과와 관련된 연간 모니터링 결과
	네트워킹		네트워킹 관련 활동 실적(개최횟수, 참여인원규모를 기본으로 하되, 홍보실적, 발표건수 등을 상황에 따라 활용)
평가관련			지원대상만족도(PCSI),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

-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사업은 문학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작가 간, 작가와 독자 간 교류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입주 작가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문학 창작여건을 활성화하기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안에 속해있다.
-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예술창조역량강화’ 로 단위사업에 속해있으며, ‘예술가단체의 창조역량강화’ 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 2009년에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사업운영’ 부문에서 4개의 지표, ‘사업성과’ 부문에서 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있었으나, 2010년 ~ 2011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평가방법이 세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산출근거	산출근거
지원대상만족도 (PCSI)	(‘전년도’)+[‘전년도x2%(증가율)']	전년도 결과치를 기준으로 하여, 의욕적인 수준 증가율(2%)을 적용하여 만족도 전년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예술지원단체 활동수준(건)	결과치 : 발표작품+공연횟수+전시횟수+발 간물수 {(‘전년도’)+[‘전년도x(‘전전년도대비’전 년도 예산증감률:비중0.5)(‘전전년도대비 지원건수대비’전년도 선정건수증감률:비중0.5)]}x2%	전년도 결과치를 기준으로 설정한 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2개 주요변수를 각 50% 비중으로 적용(예산증감요인, 선정건수 증감요인)

- 창작 공간을 운영 중인 단체나 개인에게 공간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문학 창작집필공간지원 사업과 관련된 통계항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원받은 공간의 일반적인 운영 실적이 필요하다.
- 운영 실적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창작과 관련된 영역으로 해당 공간에서 집필할 수 있는 수혜를 받았던 작가의 수, 만족도를 일차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만족도와 관련된 조사지는 모든 수혜 단체가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전 개발해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기금평가에서 PCSI상의 만족도 점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PCSI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창작과 관련된 영역에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할 만한 자료는 해당 집필 공간의 사용을 통해 집필된 작품을 파악하는 것이다. 전체 원고가 해당 집필 공간에서 완결되거나 전적으로 집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집필 공간에서 일부라도 작업된 작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후의 성과를 살핀다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에 가까운 성과 자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창작 관련 영역과 함께 파악해야 할 운영 실적은 해당 공간이 작가, 평론가의 국내외 네트워킹과 관련해 진행한 활동들이다. 이러한 활동을 단순히 리스트 상태로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 운영 실적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련 활동을 범주화해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해당 범주에 대한 계량적인 실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수혜 공간은 지원연도, 지원금액, 공간의 규모, 공간의 지역적 위치, 운영방향의 차이(창작 중심 vs. 네트워크 중심), 국제교류 여부 등 특성에 따라 분류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에 맞추어 코드화해 입력해 DB화 한다. 앞서 언급한 운영 실적과 관련된 자료는 각 공간별로 실적 보고에 기반해 사업 담당자 또는 사업 담당자의 지시를 받는 입력원이 입력한다. 기금평가와 연관된 실적치와 항목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해 둘 경우, 해당 사업의 지역별 지원규모, 실적, 구체적인 활동별 통계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 착안 사항	배점
사업 계획 (20점)	1.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사업목적은 예술위원회 해당분야 지원프로그램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15
	2.목표설정의 합리성	-계량적 성과관리계획은 타당하고 협력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사업 운영 (40점)	1.계획의 이행노력	-당초의 사업계획과 세부 프로그램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가?	10
	2.홍보활동의 효과성	-공간 및 사업 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홈페이지 운영, 매체 홍보 등)과 관객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가?	10
	3.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예산구성내역 및 편성은 적절한가? -지원금 정산기준 및 양식에 따라 적정하게 정산보고를 하였는가?	10
	4.행정절차 이행노력	-교부신청서, 성과보고서 등 사업진행에 관련된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였는가?	10
사업 성과 (40점)	1.사업목표의 달성도	-성과보고서에 적시한 사업의 자체평가는 충실한가? -계량적 성과관리계획은 충실하게 달성되었는가? -사업의 성과는 예술위원회 해당분야 지원프로그램의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하였는가?	30
	2.해당분야 기여도 및 파급효과	-동 사업을 통해 해당 분야 예술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언론/평론계 리뷰, 기타 수상 내역 등	10
총계	8개 평가항목		100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2.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구분			통계항목
지원수혜자관련			지원년도, 지원금액, 공간규모(단위표준화), 공간위치(17개시도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수준), 운영구분(창작 중심, 전시 중심), 공간운영 주체구분(대안공간, 사립미술관), 국제교류포함여부 등
사업 관련	창작	단기	지원받은 작가의 수, 지원을 통해 창작된 작품 수(회화, 사진, 조각, 공예 등 장르별 범주화를 통해 별도 집계), 표준화된 만족도 조사 점수(지원수혜단체의 만족도, 작가의 만족도)
		예비	집필 지원 중 작성된 작품에 대한 정보에 기반해 해당 작품의 성과와 관련된 연간 모니터링(해외 출품 여부 및 수상 여부 등)
	전시	일반 관람객	전시 개최 활동 실적을 개최횟수, 개최기간, 전시 작품 수, 전시 관람객 수 등을 기본으로 관리 하되, 홍보실적을 필요에 따라 활용
		미술계	신문, 잡지 등에 기고된 평론의 수, 평론의 내용 분석, 전문가 모니터링 (구조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 등 파악 가능
평가관련			지원대상만족도(PCSI),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

-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사업은 민간에서 운영중인 시각예술창작 및 전시공간(사립미술관, 대안공간 등)을 지원함으로써 특화된 창작 활동의 거점을 확충하며, 예술가(단체)의 안정적 창작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안에 속해있다.
-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예술창조역량강화’로 단위사업에 속해있으며, ‘예술가단체의 창조역량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에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사업운영’ 부문에서 4개의 지표, ‘사업성과’ 부문에서 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있었으나, 2010년 ~ 2011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평가방법이 세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대안공간과 같은 비영리 창작 및 전시공간이나 사립미술관이 창작 신작 위주의 기획전을 2회 이상 포함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전시공간, 미술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관의 운영 실적을 어떻게 파악하는 지가 관련 통계항목 개발에 매우 중요하다.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사업의 실적은 창작, 전시의 두 부문으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창작 부문은 해당 지원을 통해 창작된 작품의 수를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작품에 대한 범주화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해당 범주별로 분류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화, 사진, 조각, 공예, 디자인, 설치미술, 영상, 미디어아트 등과 같은 장르별 분류 체계를 만들어 이를 기본적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시 부문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측면과 시각예술 관련 공동체의 평가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측면에서는 관람객 수, 전시 만족도 등이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적 자료가 된다. 부수적으로는 홍보실적과 같은 사항을 함께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시각예술 관련 공동체의 평가에 있어서는 사전 지원심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사후 방문을 통해 정해진 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다. 가능하다면, 해당 전시에 대한 주요 미술 전문 매체의 전시후기나 평론이 얼마나 발표되었는지 수를 헤아리거나, 정성적으로 평론의 내용을 함께 살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사업을 통해 작품을 창작했던 작가나, 해당 작품의 향후 활동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사업 성과 관리와 관련된 인력이나 자원이 갖춰질 경우 시행을 고려해 볼 만 하다.
- 수혜 받은 전시공간은 지원연도기간, 지원금액, 공간의 규모, 공간 분류(대안공간/사립미술관/기타), 공간의 지역적 위치 등 특성에 따라 분류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에 맞추어 코드화해 입력해 DB화 한다. 위에서 언급한 운영 실적과 관련된 자료는 각 공간별로 실적 보고에 기반해 사업 담당자 또는 사업 담당자의 지시를 받는 입력원이 입력한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 착안 사항	배점
사업 계획 (20점)	1.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사업목적은 예술위원회 해당분야 지원프로그램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15
	2.목표설정의 합리성	-계량적 성과관리계획은 타당하고 협력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사업 운영 (40점)	1.계획의 이행노력	-당초의 사업계획과 세부 프로그램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가?	10
	2.홍보활동의 효과성	-공간 및 사업 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홈페이지 운영, 매체 홍보 등)과 관객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가?	10
	3.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예산구성내역 및 편성은 적절한가? -지원금 정산기준 및 양식에 따라 적정하게 정산보고를 하였는가?	10
	4.행정절차 이행노력	-교부신청서, 성과보고서 등 사업진행에 관련된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였는가?	10
사업 성과 (40점)	1.사업목표의 달성도	-성과보고서에 적시한 사업의 자체평가는 충실한가? -계량적 성과관리계획은 충실하게 달성되었는가? -사업의 성과는 예술위원회 해당분야 지원프로그램의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하였는가?	30
	2.해당분야 기여도 및 파급효과	-동 사업을 통해 해당 분야 예술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언론/평론계 리뷰, 기타 수상 내역 등	10
총계	8개 평가항목		100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3. 시각예술행사지원

구분		통계항목
지원수혜자관련		지원년도, 지원금액, 공간위치(17개시도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수준), 공간운영주체구분(민간단체의 성격에 따른 분류), 국제행사여부, (국내 행사일 경우)국제교류포함여부 등
사업 관련	전시 일반	참여 작가 수, 참여 작품 수(회화, 사진, 조각, 공예 등 장르별 범주화를 통해 별도 집계), 전시공간규모(단위표준화), 개최기간
	관람객 관련	방문 관람객 수, 표준화된 만족도 조사 점수, 대외 보도 실적(단기적으로는 건수 중심으로 파악, 장기적으로는 매체별 가중치 운영 가능)
	미술계 관련	신문, 잡지 등에 기고된 평론의 수, 평론의 내용 분석, 전문가 모니터링(구조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 전문가 공동체 내에서의 평판(전문가 패널 대상 설문조사 가능) 등
평가 관련		장기적으로 단순한 만족도 조사만이 아니라, 행사 영향 평가(impact study) 시행

- 시각예술행사지원사업은 특성화된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시각예술 전시 및 기획행사 지원을 통해 탁월한 시각분야의 행사를 개발함으로써 작가 및 예술 단체의 창작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의 시각예술 향유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속해있다.
-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예술창조역량강화’로 단위사업에 속해있으며, ‘예술가단체의 창조역량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시각예술행사지원사업은 추가로 국고에서 기금으로 이관 추진된 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사업에서의 2011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다.
- 시각예술행사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 범주의 대규모 시각예술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의 특성상 연간 지원 대상이 되는 민간단체의 수도 다른 사업에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비해 제한적이어서 자료의 파악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 수도 있다.

- 시각예술행사인 만큼 창작 측면 보다는 국민의 향유 확대 측면에서의 실적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사에 방문한 방문객 수와 만족도(현재 별도의 조사를 통해 평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를 기본적인 계량 자료로 하고, 시각예술계의 정성적인 평가를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한 현장 평가나 사후 평가로 반영할 수 있다.
- 지원받는 사업이 행사인 만큼, 경제적 측면과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영향평가(impact study)를 실시해 1·2차 경제효과나 파급효과와 관련한 지표를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자료와 함께 국내외 홍보실적, 시각예술 공동체에서의 평판(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 가능), 지원 예산규모, 지원 기간, 지원 단체의 성격, 행사 지역, 행사 특성(국내 vs. 국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이들의 관련성을 기존 자료를 통해 검토한 뒤, 다양한 요소를 단일화 할 수 있는 종합 지표를 고안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4. 시각예술비평활성화사업지원

구분		통계항목
지원수혜자관련		지원년도, 지원금액, 활동소재지역(17개시도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 수준), 주체구분(개인, 단체), 수행사업의 성격(행사, 매체발간, 조사연구, 비평집발간) 등
사업 관련	행사	참여자 수, 참여자 만족도, 보도 실적 등
	매체발간	발행부수, 구독자수, 전문가 공동체의 평판(설문조사 가능) 등
	개인비평집 발간	인쇄부수, 판매부수(가능할 경우), 서평 건수 등
	조사연구	연구의 출판 또는 발표 결과, 등재학술잡지 게재 여부 등
평가 관련		지원대상만족도(PCSI),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

- 시각예술비평활성화사업지원사업은 비평집 발간 및 연구활동 등을 통한 담론 형성 및 심층 연구 활동을 장려하여 획기적으로 시각예술분야 전반의 비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속해있다.
-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 2010년 평가지표로는 ‘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 ‘성과 및 환류’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다.
- 하나의 사업이지만, 포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 전문지 발간 지원에서 개인 비평집, 비평 매체, 비평 중심의 세미나·심포지엄, 조사연구 활동 등이 모두 포함이 되는 만큼 사업 전체의 성과를 포괄하는 지표를 설계하기는 쉽지 않다.
- 단순히, 지원대상의 만족도 조사를 반영할 경우 해당 사업의 여러 정량적, 정성적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특성이 자료화되지 않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업이 포괄하고 있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인 성과지표를 만들고 이에 사업 목적에 비추어 가중치를 적용한 종합 산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전문지 발간이나 비평 매체에 있어서는 전문지의 발행부수, 구독자 수 등과 같은 지표를 활용, 이를 등급화해서 점수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량적인 지표를 만들고 이러한 계량 지표들을 하나의 점수로 종합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업 평가처럼 매년 전문가들이 심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에 대해서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점수를 배정한 평가 결과를 덧붙여 질적인 측면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지원 대상이 개인 비평가인지, 비평전문매체를 발간하는 단체인지에 대한 구분에서 시작해서, 지원을 통해 진행하는 사업의 성격(행사, 매체발간, 조사연구, 개인비평집 발간 등)에 따른 분류, 지원 예산 등을 기초로 DB를 구축하고 위에 언급한 항목들을 입력해 자료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산출근거	산출근거
지원대상만족도 (PCSI)	(‘전년도’)+[‘전년도x2%(증가율)']	’ 전년도 결과치를 기준으로 하여, 의욕적인 수준 증가율(2%)을 적용하여 만족도 전년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 예술지원단체 활동수준(건)	결과치 : 발표작품+공연횟수+전시횟수+발간물수 {(‘전년도’)+[‘전년도x(‘전전년도대비’전년도 예산증감률:비중0.5)(‘전전년도대비 지원건수대비’전년도 선정건수증감률:비중0.5)]]x2%	’ 전년도 결과치를 기준으로 설정한 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2개 주요변수를 각 50% 비중으로 적용(예산증감요인, 선정건수 증감요인)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5.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구분		통계항목
지원수혜자관련		지원년도, 지원금액, 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활동-소재지역(17개 시도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수준), 단체규모, 단체성격(임의단체, 전문예술법인 등), 국제교류포함여부, 타분야와의 융합 여부 등
사업 관련	공연 일반	공연 제목, 작품 길이, 초연 공연장, 주요 참여 예술인
	관람객 관련	관객 수(장르별 특성을 반영해 보정), 표준화된 만족도 조사 점수, 보도 실적(단기적으로는 건수 중심으로 파악, 장기적으로는 매체별 가중치 운영 가능)
	공연계 관련	신문, 잡지 등에 기고된 평론의 수, 평론의 내용 분석, 전문가 모니터링(구조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 전문가 공동체 내에서의 평판(전문가 패널 대상 설문조사 가능), 사후평가 결과 등

-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사업은 공연 현장심사를 통해 우수작품을 발표한 단체를 선정하고, 그 단체의 차기 사업을 지원하여, 공연예술 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우수 창작물의 개발을 위한 선순환체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속해있다.
-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 2010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다.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4개 분야별로 협회 성격이 아닌 공연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창작과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연예술단체별로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활동지역(16개 시도별), 단체규모, 단체의 성격(임의단체, 전문예술법인 등) 등을 파악하고, 공연에 대해서는 제목, 작품의 길이, 초연 공연장 등의 자료를 추가해 기본 자료를 구성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을 받은 공연의 향유 측면은 초연 시 관객규모와 관객의 만족도 등으로 파악할 수 있겠으나, 분야별 특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극장 규모가 크고, 대중성이 있는 연극과 음악 분야의 경우와 무용, 전통예술의 경우 등을 동일한 기준에 놓고 성과를 파악할 경우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의 향유 측면에 긍정적인 성과를 위해선 연극과 음악을 중심으로 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사업은 사후 평가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공연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러한 자료를 함께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자료화시켜 나갈 경우 사업의 효과성이나 지원의 효율성과 관련해 여타 사업보다 정확한 지표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6.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

구분			통계항목
지원수혜자관련			지원년도, 지원금액, 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공간규모(단위 표준화), 객석규모, 공간특성(소유, 임차), 공간위치(17개시도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수준), 운영구분(창작 중심, 발표 중심), 단체규모, 단체성격(개인, 임의단체, 전문예술법인 등), 국제교류포함여부, 타분야와의 융합 여부 등
사업 관련	창작	단기	지원을 통해 창작된 작품 수(장르별 범주화를 통해 별도 집계), 작품별 공연 횟수, 표준화된 만족도 조사 점수(창작단체의 만족도)
		예비	지원 중 창작된 작품에 대한 정보에 기반해 해당 작품의 성과와 관련된 연간 모니터링(국내 성과, 해외 진출, 수상 여부 등)
	발표	일반 관객	총 공연 작품 수, 작품별 공연 횟수, 공연 기간, 관객 규모, 객석 점유율, 표준화된 만족도 조사 점수(관객 만족도)
		공연계	신문, 잡지 등에 기고된 평론의 수, 평론의 내용 분석, 전문가 모니터링(구조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 등 파악 가능
평가관련			지원대상만족도(PCSI),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

- 공연예술창작발표공간지원사업은 창작활동 거점을 확충하여 예술가(단체)에게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서 운영 중인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안에 속해 있다.
-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예술창조역량강화’로 단위사업에 속해있으며, ‘예술가단체의 창조역량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1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다.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의 분야별로 공연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소유임차한 예술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공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수혜 공간을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공연 분야, 공간의 규모, 객석 규모, 지역적 위치, 지원 규모 등을 기준으로 분류, 코드화하고 이에 공간의 운영 실적을 부가적으로 파악해 자료화한다.

- 공연 작품 수, 작품별 공연 횟수, 관객 규모, 관객 만족도 등을 기본적으로 파악하
되,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관객 규모에 있어서는 공연 분
야별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원 조건에 공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획,
홍보를 담당하는 상근 인력 운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해당 인력 운용에 대한
실적 또한 함께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과지표	성과목표치 산출근거	산출근거
지원대상만족도 (PCSI)	(‘전년도)+[‘전년도x2%(증가율)]	’ 전년도 결과치를 기준으로 하여, 의욕적인 수준 증가율(2%)을 적용하여 만족도 전년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예술지원단체 활동수준(건)	결과치 : 발표작품+공연횟수+전시횟수+ 발간물수 {(‘전년도)+[‘전년도x(‘전전년도대 비’전년도 예산증감률:비중0.5)(‘전전년도 대비 지원건수대비’전년도 선정건수증감률:비중0.5)]}x2%	’ 전년도 결과치를 기준으로 설정한 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2개 주요변수를 각 50% 비중으로 적용(예산증감요인, 선정건수 증감요인)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 착안 사항	배점
사업 계획 (20점)	1.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사업목적은 예술위원회 해당분야 지원프로그램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15
	2.목표설정의 합리성	-계량적 성과관리계획은 타당하고 협력적으로 설정되었는가?	5
사업 운영 (40점)	1.계획의 이행노력	-당초의 사업계획과 세부 프로그램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가?	10
	2.홍보활동의 효과성	-공간 및 사업 홍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홈페이지 운영, 매체 홍보 등)과 관객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가?	10
	3.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예산구성내역 및 편성은 적절한가? -지원금 정산기준 및 양식에 따라 적정하게 정산보고를 하였는가?	10
	4.행정절차 이행노력	-교부신청서, 성과보고서 등 사업진행에 관련된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였는가?	10
사업 성과 (40점)	1.사업목표의 달성도	-성과보고서에 적시한 사업의 자체평가는 충실한가? -계량적 성과관리계획은 충실하게 달성되었는가? -사업의 성과는 예술위원회 해당분야 지원프로그램의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하였는가?	30
	2.해당분야 기여도 및 파급효과	-동 사업을 통해 해당 분야 예술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언론/평론계 리뷰, 기타 수상 내역 등	10
총계	8개 평가항목		100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7. 공연예술행사지원

구분		통계항목
지원수혜자관련		지원년도, 지원금액, 분야(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공간규모(단위 표준화), 객석규모, 공간특성(소유, 임차), 지역(17개 시도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수준), 운영구분(창작 중심, 발표 중심), 공간운영주체구분(민간단체의 성격에 따른 분류), 국제행사여부, (국내 행사일 경우) 국제교류포함여부, 타분야와의 융합 여부 등
사업 관련	공연 일반	참여 예술가단체 수, 참여 작품 수(장르별 범주화를 통해 별도 집계), 공연장 규모(공연장의 수와 객석규모), 개최기간
	관람객 관련	관객 수, 표준화된 만족도 조사 점수, 보도 실적(단기적으로는 건수 중심으로 파악, 장기적으로는 매체별 가중치 운영 가능)
	공연계 관련	신문, 잡지 등에 기고된 평론의 수, 평론의 내용 분석, 전문가 모니터링 (구조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 전문가 공동체 내에서의 평판(전문가 패널 대상 설문조사 가능) 등
평가 관련		장기적으로 단순한 만족도 조사만이 아니라, 행사 영향 평가(impact study) 시행

- 공연예술행사지원사업은 공연예술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속해있다.
-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 2011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다.
- 공연예술행사지원 사업은 전국 단위 범주의 대규모 공연예술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의 특성상 연간 지원 대상이 되는 민간단체의 수도 다른 사업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자료의 파악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 공연예술행사인 만큼 창작 측면 보다는 국민의 향유 확대 측면에서의 실적에 중점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사에 참여한 관객 수와 만족도(현재 별도의 조사를 통해 평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를 기본적인 계량 자료로 하고, 공연예술계 전문가의 정성적인 평가를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한 현장 평가나 사후 평가로 반영할 수 있다.

- 경제적 측면과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영향평가(impact study)를 실시해 1·2차 경제효과나 파급효과와 관련한 지표를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위에 언급한 자료와 함께 국내외 홍보실적, 공연예술 공동체에서의 평판(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 가능), 지원 예산규모, 지원 기간, 지원 단체의 성격, 행사 지역, 행사 특성(국내 vs. 국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이들의 관련성을 기존 자료를 통해 검토한 뒤, 다양한 요소를 단일화 할 수 있는 종합 지표를 고안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8.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

구분		통계항목
지원수혜자관련		지원년도, 지원금액, 분야(공연, 전시, 퍼포먼스, 영상, 비평, 연구, 워크숍 등), 활동소재지역(17개 시도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수준), 주체 구분(개인, 단체), 수행사업의 성격(창작발표, 매체및 비평집 발간, 조사연구) 등, 국제교류포함여부, 주요 협업 분야(사전 범주화를 통해 정해진 범주만을 활용) 등
사업 관련	공연, 퍼포먼스	관객 수, 관객 만족도, 보도 실적, 전문가 공동체의 평가(만족도조사 또는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방문 평가), 창작된 작품의 향후 성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전시	관람객 수, 관람객 만족도, 보도 실적, 전문가 공동체의 평가(만족도조사 또는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방문 평가)
	매체발간	발행부수, 구독자수, 전문가 공동체의 평판(설문조사 가능) 등
	개인비평집 발간	인쇄부수, 판매부수(가능할 경우), 서평 건수 등
	조사연구	연구의 출판 또는 발표 결과, 등재학술잡지 게재 여부 등

-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사업은 기성 장르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실험적인 예술(탈장르예술, 기존장르에 대한 대안예술, 새로운 예술, 복합예술, 독립예술) 및 예술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예술의 창조적 종(種)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속해있다.
-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 2010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다.
- 장르 간, 학제 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예술창작활동이나 이에 관련된 비평, 연구 활동까지를 포괄하는 만큼 단일 사업이지만, 공연, 전시, 퍼포먼스, 다큐멘터리,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비평, 연구, 워크숍 등 사업 결과가 매우 다양하다는 면에서 일관된 통계항목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 사업 결과물의 측면에서 창작과 비창작을 나누고 창작에는 공연, 전시, 영상 등을, 비창작에는 비평, 연구, 워크숍, 세미나 등을 포함시켜 세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창작 부문에 대해서는 창작과 관련된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지표를 활용해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비창작 부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예술인 개인 또는 단체인지를 분류하고, 활동 지역을 함께 파악한다. 기획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한 창작, 비창작 구분 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배경 전공 및 분야를 사전에 정해진 구분에 따라 코드화해 입력한다. 예를 들어, 소설가와 안무가가 신경과학자와 협업을 통해 공연예술 작품을 창작한다면, 문학, 무용, 과학 등 세 개 분야가 주요 참여 분야가 된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9.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및 기타 국제교류사업

구분		통계항목
지원수혜자관련		지원년도, 지원금액, 분야(공연, 전시, 퍼포먼스, 영상, 비평, 연구, 워크숍 등), 활동소재지역(17개시도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수준), 주체 구분(개인, 단체), 수행사업의 성격(일회성, 계속사업) 등, 국제교류 대상국가 및 권역(권역은 표준화된 범주만을 사용) 등
사업 관련	공연, 퍼포먼스	공연 횟수, 해외 진출 건수, 관객 수, 관객 만족도, 보도 실적, 전문가 공동체의 평가(만족도조사 또는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방문 평가), 창작된 작품의 향후 성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
	전시	전시 횟수, 관람객 수, 관람객 만족도, 보도 실적, 전문가 공동체의 평가(만족도조사 또는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방문 평가)
	레지던시 창작거점	참여자 만족도, 파견 중 창작된 작품의 목록화 및 지속적 모니터링, 지원받은 작가 DB 구축 및 이후 성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평가관련		지원대상만족도(PCSI),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

-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은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민간 차원의 국제 및 남북 문화예술교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예술의 창작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남북 간의 민족문화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기위한 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에 속해있다.
- 2009년 평가지표로는 ‘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 ‘성과 및 환류’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다.
-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경우 ‘예술의 국제협력증진’ 으로 단위사업에 속해 있으며, ‘문화예술 해외소개 및 문화예술단체 국제역량 강화’ 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성과지표	산식 및 산출근거	산출근거설명
수혜단체만족도 (PCSI)	- 09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치 제시 (수행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조사기간 : 2009.10.12~12.5)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이용 개별방문면접조사)	과거 실적 2개년도 평균치를 감안하여 '08년도 결과 치를 기준으로 개선을 2%를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예술지원단체활 동수준(건)	- 예술의 국제협력증진 사업 총 지원행사(건) 제시 발표작품수+공연횟수+전시횟수+발간 물수	'전년대비 예산증가율 및 예산대비성과증감도를 고려, 전년 목표대비 2%증가한 8,430건을 목표로 설정

-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은 PCSI 상의 수혜단체의 만족도와 발표작품, 공연횟수, 전시횟수, 발간물수 등을 종합한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을 계량적인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수혜단체만족도의 경우 사업 결과라기 보다는 과정 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표인데다,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은 사업의 계량적인 속성 중 특정 측면만을 임의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전시의 경우 전시 횟수만을 반영하고 있으나, 전시 기간과 방문객 통계 또한 횟수에 못지 않은 계량적인 특성임을 감안하면 이 중 전시 횟수만을 반영하는 것은 다소 임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에 대한 지표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계량적인 특성을 종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선 방향은 공연 관객 수, 전시 관람객 수, 공연 만족도, 전시 만족도, 전시 기간, 발간물의 발행부수 및 구독자 수 등 다양한 계량적인 특성들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이 중 본 사업의 목표와 연관성이 깊은 항목들을 추려내 종합적인 산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ARKO-PAMS 협력사업지원,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 사업과 같은 다른 국제교류지원사업에 있어서도 동일한 접근이 필요하다.
- 일회성 단기 프로젝트 위주의 문화예술 국제교류 활동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거점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또는 계기를 활용하기 위한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사업의 경우 장르에 있어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과 사업 특성에 있어 공유하는 점이 많다. 다만, 사업의 중기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는 면에서 사업 평가 지표에 중기단위의 측정 주기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ARKO-PAMS 협력사업지원은 서울아트마켓의 팸스초이스로 선정된 작품의 해외 초청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다른 국제교류지원사업과 달리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성과 측면에 대한 검토가 비교적 쉽다.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팸스초이스 지원 작품의 해외 진출건수를 중요한 통계로 활용하되, 국제 교류의 실질적인 특성을 감안해 ‘작품’을 기준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단체의 해외 진출건수를 파악해 이를 보완하고, 이들의 국제적 평판에 대한 질적인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해외창작거점예술가파견지원사업은 해외 창작 거점에 예술가를 파견하여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네트워크 확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을 망라해 지원된다. 파견될 거점은 분야별로 지정되어 있다. 다른 국제교류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장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지원받은 개인·단체의 활동수준에 대한 포괄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10.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구분		통계항목
지원수혜자관련		지원년도, 지원금액, 분야(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예술인및단체의 활동소재지역(17개시도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수준), 국제교류대상국가 및 권역(권역은 표준화된 범주만을 사용) 등
사업 관련	문학	참가기간, 창작 작품 및 성과, 해당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문학 전문가 공동체의 평판(설문조사가능), 창작된 작품 또는 참여 작가의 향후 성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
	시각예술	참가기간, 창작 작품 및 성과, 발표여부, 해당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미술계 전문가의 평판(설문조사가능), 창작된 작품 또는 참여 작가의 향후 성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
	공연예술	참가기간, 창작 작품 및 성과, 공연여부, 해당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공연계 전문가의 평판(설문조사가능), 창작된 작품 또는 참여 아티스트의 향후 성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
평가관련		지원대상만족도(PCSI),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

-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사업은 예술인의 해외 창작스튜디오(Artist in residence)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예술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속해있다.
-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예술의 국제협력증진’으로 단위사업에 속해있으며, ‘문화예술 해외소개 및 문화예술단체 국제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2011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다.
- 장르에 있어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만큼 국제문화예술 교류지원사업과 사업 특성에 있어 공유하는 점이 많다. 다만, 사업의 중기적인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특성을 고려한다는 면에서 사업 평가 지표에 중기단위의 측정 주기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해외 주요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된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다른 국제교류지원사업과 달리 공연예술의 해외진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성과 측면에 대한 검토가 비교적 용이하나, 그 결과가 직접적이지 않아 성과(outcome)보다는 결과(output) 차원의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결과 차원의 자료로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의 분야 구분, 지원 수혜 예술인단체의 활동 지역 등으로 각 건을 파악해 지원 건수를 종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추가적으로는 현재 기금사업 평가시 활용하고 있는 예술단체활동수준과 같은 지표처럼 지원받은 개인·단체의 활동수준에 대한 개선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과지표	산식 및 산출근거	산출근거설명
수혜단체만족도 (PCSI)	- 전년도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치 제시 (수행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조사기간 : 10.12~12.5)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이용 개별방문면접조사)	과거 실적 2개년도 평균치를 감안하여 '전년도 결과 치를 기준으로 개선율 2% 를 반영하여 목표치 설정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건)	- 예술의 국제협력증진 사업 총 지원행사(건) 제시 발표작품수+공연횟수+전시횟수+발간물수	'전년대비 예산증가율 및 예산대비성과증감도를 고려, 전년 목표대비 2%증가한 8,430건을 목표로 설정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평가방법	평 가 지 표	평가배점	평가주체
서면평가 (5점)	○ 사업계획서, 성과보고서, 중장기발전계획서 등 서면보고서 적 기 및 적정양식 제출 여부	계량평가(5점)	해당부서
회계평가 (10점)	○ 예산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 ○ 계획대비 재정자립도 및 외부자원 조달정도	정성평가(10점)	평가위원 (회계사)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 정량 평가 (35점)	○ 필수이행조건(거주일수 · 교류국가수 · 해외예술 가수)	계량평가(5점)	해당부서
	○ 문예진흥기금 성과평가지표 -계획대비 총지원행사(프로그램) 수 -계획대비 수혜예술가 및 프로그램 참가자 수 등	계량평가(5점)	해당부서
	○ 사업실태 현장평가 결과	계량평가(5점)	평가위원 해당부서
	○ 참여예술가 만족도 조사	계량평가(20점)	참여예술가
사업운영 및 성과에 대한 전반적 정성 평가 (50점)	○ Plan(계획) 관점 -비전 및 사업계획, 운영전략 수립여부 및 적정성	정성평가(10점)	평가위원
	○ Do(실행) 관점 - 사업계획대비 운영실태 모니터링 현장방문평가 - 공간-프로그램-인력자원 등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및 개발 노력	정성평가(10점)	평가위원 해당부서
	○ Check(평가) 관점 / 사업성과 프리젠테이션 -레지던스 추후 연계 사업실적 -사업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 노력 -사업내용의 체계적 기록 및 유지, DB화 노력 -자체홈페이지 운영 공시, 개방성 노력 -단체운영 및 동사업에 대한 수상실적 등	정성평가(20점)	평가위원
	○ Action(환류) 관점 -자체평가체계구축 -자체진단 및 개선점 도출 노력	정성평가(10점)	평가위원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11. 노마드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구분		통계항목
지원수혜자관련		지원년도, 지원금액, 분야(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예술인및단체의 활동소재지역(17개시도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수준), 공동창작레지던스사업국가 등
사업 관련	문학	참가기간, 창작 작품 및 성과, 창작된 작품 또는 참여 작가의 향후 성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
	시각예술	참가기간, 창작 작품 및 성과, 발표여부, 창작된 작품 또는 참여 작가의 향후 성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
	공연예술	참가기간, 창작 작품 및 성과, 공연여부, 창작된 작품 또는 참여 아티스트의 향후 성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
평가관련		지원대상만족도(PCSI),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

- 노마드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사업은 예술가 개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힘든 다양한 해외 창작거점 개발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예술 창작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외국 작가들과의 단기 공동창작레지던스 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예술가들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속해있다.
- 2010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다.
- 극지연구소, 이란예술아카데미, 러시아 이르쿠츠크주문화부, 몽골예술위원회, 인도 인코센터 탈리칼리 아카데미 등 5개 협력기관에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 지원이 사업의 주 내용이다.
- PCSI 상의 수혜단체의 만족도와 발표작품, 공연횟수, 전시횟수, 발간물수 등을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종합한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을 계량적인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나, 수혜 예술 단체 만족도의 경우 사업 결과라기 보다는 과정 지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표인데다,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은 사업의 계량적인 속성 중 특정 측면만을 임의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전시의 경우 전시 횟수만을 반영하고 있으나, 전시 기간과 방문객 통계 또한 횟수에 못지 않은 계량적인 특성임을 감안하면 이 중 전시 횟수만을 반영하는 것은 다소 임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에 대한 지표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계량적인 특성을 종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선 방향은 공연 관객 수, 전시 관람객 수, 공연 만족도, 전시 만족도, 전시 기간, 발간물의 발행부수 및 구독자 수 등 다양한 계량적인 특성들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이 중 본 사업의 목표와 연관성이 깊은 항목들을 추려내 종합적인 산식을 개발하는 것이다.

- 장르에 있어서 문학, 시각예술, 전통예술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사업과 사업 특성에 있어 공유하는 점이 많다. 다만, 사업의 중기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는 면에서 사업 평가 지표에 중기단위의 측정 주기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12.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구분		통계항목
지원수혜자관련		지원년도, 지원금액, 장르(시, 시조, 소설, 희곡, 동시, 동화, 수필, 평론), 활동소재지역(17개 시도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수준), 개인작품집 발간 여부(2년 뒤 확인)
사업 관련	단기	발표 여부, 발간된 작품집의 인쇄부수, 판매실적, 해당 작가 또는 자류집에 대한 평론 수, 문학관련 수상 실적 등
	장기	발간 후 2~3년 주기로 지원 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가 및 작품의 성과를 파악

-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은 문학적 잠재력이 뛰어난 작가가 우리 문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작품을 집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국문학의 새로운 성과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등단 5년 이상의 작가를 기준으로 향후 2년 내 개인 작품집 발간 계획이 있는 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시, 시조, 소설, 희곡, 아동문학(동시, 동화), 수필, 평론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 개인 작품집 발간 지원을 통한 창작 지원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의 지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성과로 지원을 통해 발간된 작품집의 연간 판매 실적과 누적 판매 실적 등 정량적인 지표와 함께 평단을 포함한 문학계의 반응을 요약할 수 있는 정성적인 지표를 포함할 수 있다. 문학계의 반응에는 해당 작품집에 대한 평론 수, 문학관련 수상실적 등의 계량적인 자료 또한 포함될 수 있지만 이를 그대로 계량화하기 보다는 구간화해 질적인 측면에서 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
- 두 번째는 보다 장기적인 성과로서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을 통해 지원받은 작가의 문학계에서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계량화된 지표보다는 발간 후 2~3년을 주기로 지원 받았던 작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 중심의 모니터링을 통해 산출해 내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13. 우수문예지발간지원

구분		통계항목
지원수혜자관련		지원년도, 지원금액, 분야(시, 시조, 소설, 희곡, 동시, 동화, 수필, 평론, 종합), 활동·소재지역(17개 시도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수준), 발간주기(월간, 격월간, 계간, 반년간 등)
사업 관련	단기	발행 부수, 정기구독자 수, 판매실적, 전문가 공동체 내에서의 평판(설문조사 가능) 등
	장기	해당 문예지를 통해 등단한 작가 수, 발표된 작품 수, 등단작가, 발표 작품에 대한 문학계 내부의 평가 모니터링

-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은 문학 작품의 주요 발표 공간인 우수 문예지 및 문학 분야 주요 기관지를 지원하여 문학 창작, 비평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예지나 기관지를 발간하는 문학 단체나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서 발간되는 월간, 격월간, 계간, 반년간 순수 종합 문예지나 분야별 전문지 뿐만 아니라 문학 분야 주요 단체의 기관지까지 포함한다.
- 문학 창작과 비평 활동의 플랫폼이 되는 인쇄매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본 사업의 성과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통계는 지원받은 문예지, 기관지의 발행부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발행부수의 경우 제작 측면에 기초한 지표이므로 이것이 다양한 독자층에 전달되고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보완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계된 구독자 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사업의 목적에 보다 충실한 성과를 살피기 위해서는 해당 문예지, 기관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창작, 비평 활동이 이루어 졌는지를 계량화해서 살피는 방법도 있다. 해당 문예지나 기관지를 통해 발표된 창작 작품 수와 비평의 수를 건수를 중심으로 헤아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일 것이다. 이러한 계량적인 접근이 얼마간 자리를 잡는다면, 해당 창작 작품과 비평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정성적인 지표를 추가적으로 운영한다면 보다 적실성 있는 지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14. 문학조사연구지원

구분		통계항목
지원수혜자관련		지원년도, 지원금액, 분야(시, 시조, 소설, 희곡, 동시, 동화, 수필, 평론, 종합), 활동소재지역(17개 시도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수준), 사업구분(조사연구, 행사) 등
사업 관련	조사, 연구	학회나 등재학술지 게재 여부, 이후 피인용 실적 파악
	행사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등)	참여자 수, 참여자 만족도, 보도 실적, 문학 공동체 내에서의 영향력 또는 평판(설문조사 또는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현장 평가)

- 문학조사연구지원사업은 문학의 성과와 가치에 대한 조사, 연구, 비평 및 담론 생산 활동을 지원해 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학 분야 조사 연구 실적이 있는 단체에 지원된다. 조사·연구 사업은 물론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등도 지원 대상에 속한다.
- 조사·연구와 관련된 지원 사업의 경우 기본적인 성과가 장기적이거나 간접적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 지표를 개발해 활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등처럼 조사·연구지원과 다소 구별되는 활동 또한 지원 대상인 만큼 더욱 그렇다.
- 파급효과를 파악한다는 면에서 조사·연구의 경우 지원받은 연구가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술지 게재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다. 게재 건수가 주요 통계가 되는 것이다. 게재 이후에는 피인용 실적을 추적 파악해 보완하고 이를 통합해 종합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다만,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등의 사업이 지원받았을 경우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주요 매체를 중심으로 한 홍보 실적이나, 참여자 규모 등을 중심으로 계량적인 자료를 파악할 수도 있고,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매 년 지원된 행사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그 유의미성이나 성과 등을 평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15. 공연예술비평활성화사업지원

구분		통계항목
지원수혜자관련		지원년도, 지원금액, 활동·소재지역(17개시도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 수준), 주체구분(개인, 단체), 수행사업의 성격(행사, 매체발간, 조사연구, 비평집발간) 등
사업 관련	행사	참여자 수, 참여자 만족도, 보도 실적 등
	매체발간	발행부수, 구독자수, 전문가 공동체의 평판(설문조사 가능) 등
	개인비평집 발간	인쇄부수, 판매부수(가능할 경우), 서평 건수 등
	조사연구	연구의 출판 또는 발표 결과, 등재학술잡지 게재 여부, 피인용 지수
평가 관련		지원대상만족도(PCSI), 예술지원단체활동수준

- 공연예술비평활성화사업지원은 전문지 발간을 통한 공연예술계의 담론 형성과 심층 연구 활동을 장려해 공연예술분야 전반에 대한 비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3년 이상 공연예술 전문지를 발간한 단체나 공연예술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연 리뷰, 비평문, 국내외 각종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 전문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사업이나 비평과 관련한 학술행사, 매체발간, 조사연구, 개인비평집 발간 사업이 포함된다.
- 하나의 사업이지만, 포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 전문지 발간 지원에서 개인 비평집, 비평 매체, 비평 중심의 세미나·심포지엄, 조사연구 활동 등이 모두 포함이 되는 만큼 사업 전체의 성과를 포괄하는 지표를 설계하기는 쉽지 않다.
- 사업이 포괄하고 있는 활동의 성격에 따라 개별적인 성과지표를 만들고 이에 사업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목적에 비추어 가중치를 적용한 종합 산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전문지 발간이나 비평 매체에 있어서는 전문지의 발행부수, 구독자 수 등과 같은 지표를 활용, 이를 등급화해서 점수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량적인 지표를 만들고 이러한 계량 지표들을 하나의 점수로 종합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업 평가처럼 매 년 전문가들이 심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에 대해서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점수를 배정한 평가 결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16.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

구분		통계항목
지원수혜자관련		지원년도, 지원금액, 분야(공연, 전시, 퍼포먼스, 영상, 비평, 연구, 워크숍 등), 활동소재지역(17개시도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수준), 주체 구분(개인, 단체), 수행사업의 성격(창작발표, 매체및 비평집 발간, 조사연구) 등, 국제교류포함여부, 주요 협업 분야(사전 범주화를 통해 정해진 범주만을 활용) 등
사업 관련	공연, 퍼포먼스	관객 수, 관객 만족도, 보도 실적, 전문가 공동체의 평가(만족도조사 또는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방문 평가), 창작된 작품의 향후 성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전시	관람객 수, 관람객 만족도, 보도 실적, 전문가 공동체의 평가(만족도조사 또는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방문 평가)
	영상 (다큐멘터리 등)	상영여부, 상영횟수, 관객규모, 관객 평가 등
	워크숍	참여자 수, 참여자 만족도, 보도 실적 등
	조사연구	연구의 출판 또는 발표 결과, 등재학술잡지 게재 여부 등

- 융복합공동기획프로젝트는 사회문화적 통섭의 시대적 환경에 발맞춘 예술 활동을 이끌기 위해 새로운 예술 담론 생산과 융복합 예술의 창작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융복합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단체는 물론, 이들과 협업하고자 하는 과학, 기술, 인문학 관련 단체까지를 지원 자격으로 삼는다. 장르간, 학제간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예술창작활동은 물론, 이와 관련된 비평 및 연구 활동, 융복합형의 공연, 전시, 퍼포먼스, 다큐멘터리, 워크숍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상대적으로 아직 활발하지 않은 융복합 예술 활동을 진흥하고자 인큐베이팅 성격의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실적 형태로 파악할 수 있는 사업 성과에 대한 접근과는 방향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지원되는 대상의 유형이 공연, 전시, 퍼포먼스, 워크숍, 비평, 연구 등을 포괄하는 만큼 이들을 한번에 포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보다는 개별 유형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 이를 종합하는 형태로 산식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 형성된 타 분야 간의 네트워크가 향후 얼마나 지속, 성장하면서 다양한 아웃풋을 내놓는 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간다면, 위에 언급된 단기적인 성과에서는 측정되기 어려운 본연의 성과 개념에 가까운 결과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제2절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1. 문화바우처

- 문화바우처 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음반,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을 통하여 문화나눔을 확대하고 문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일상의 행복과 삶의 여유를 찾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속해있다.
-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생활속의 예술 활성화’로 단위사업에 속해있으며, ‘문화소외지역, 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평가지표로는 ‘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 ‘성과 및 환류’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으나 2010년, 2011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변경되었다.
- 2009년, 2010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 평가지표에서는 ‘사업목적’ 부문에서는 3개의 공통지표를 사용하고,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6개의 지표, ‘사업성과’ 부문에서는 4개의 지표, ‘환류체계’ 부문에서는 2개의 특성화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지표에 따라 ‘계량’, ‘비계량’, ‘계량/비계량’으로 구성되어있다.
- 2011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 평가지표는 기존 지표(2009, 2010년)에서보다 체계화된 지표로 바뀌었는데, ‘사업목적’ 부문에서는 3개의 지표에서 4개의 지표로 ‘목표’ 부문이 추가되었고,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5개 지표로 축소되었고, ‘사업성과’ 부문에서는 3개의 지표로 축소되었으며 ‘환류체계’ 부문에서는 평가보고서작성 부분이 모니터링제도로 바뀌었다. 지표에 따라 ‘계량’, ‘비계량’, ‘계량/비계량’으로 구성되어있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성과지표	산식 및 산출근거	산출근거설명
PCSI	전년 결과(78.9점) × 1.02(2% 상승) = 80.0점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을 적용하여 만족도 전년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수혜인원	(올해 예산/전년 예산) × (전년 수혜인원) × 1.02(2%상승률) · $[(218/198) \times (1,447,689)]$ × 1.02 = 1,625,784명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을 적용하여 수혜인원 전년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수혜자 만족도	전년 결과(82.7점) × 1.02(2% 상승) = 84.4점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 적용하여 수혜자 만족도 상향 적용
인지도	10년 인지도 50% 목표로 하여 올해 인지도 목표는 전년대비 10% 상승 · 전년 결과(40.3%) × 1.1(10% 상승) = 44.3%	전년도 10% 상승, 2010년까지 인지도 50% 이상 장기 목표 수립
예산대비 1인당 기획비용	(전년 예산/수혜인원) > (올해 예산/수혜인원)	전년대비 1인당 비용 절감하여 비용 효과성을 상향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속해 있는 만큼 자체 평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 성과지표의 산출을 위한 주 항목들을 주요 통계항목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문예진흥기금내 사업의 통계항목들을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2. 사랑티켓

- 사랑티켓사업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1991년부터 시작된 사랑티켓사업은 200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초기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관객개발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제도를 일부 개선하여 소외계층의 관람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의 잠재관객을 개발함으로써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 문화를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나눔은 복권기금 이외에 기업의 협찬과 기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의 미래를 가꾸어 가기위한 사업이다. 사랑티켓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과 지방정부 예산으로 공연·전시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속해있다.
- 사랑티켓은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생활속의 예술 활성화’로 단위사업에 속해있으며, ‘문화소외지역, 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평가지표로는 ‘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 ‘성과 및 환류’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0년, 2011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변경되었다.
- 2009년, 2010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 평가지표에서는 ‘사업목적’ 부문에서는 3개의 공통지표를 사용하고,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6개의 지표, ‘사업성과’ 부문에서는 4개의 지표, ‘환류체계’ 부문에서는 2개의 특성화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지표에 따라 ‘계량’, ‘비계량’, ‘계량/비계량’으로 구성되어있다.
- 2011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 평가지표는 기존 지표(2009, 2010년)에서보다 체계화된 지표로 바뀌었는데, ‘사업목적’ 부문에서는 3개의 지표에서 4개의 지표로 ‘목표’ 부문이 추가 되었고,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5개 지표로 축소되었고, ‘사업성과’ 부문에서는 3개의 지표로 축소되었으며 ‘환류체계’ 부문에서는 평가보고서작성 부분이 모니터링제도로 바뀌었다. 지표에 따라 ‘계량’, ‘비계량’, ‘계량/비계량’으로 구성되어있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성과지표	산식 및 산출근거	산출근거설명
PCSI	전년 결과(78.9점) × 1.02(2% 상승) = 80.0점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을 적용하여 만족도 전년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수혜인원	(올해 예산/전년 예산) × (전년 수혜인원) × 1.02(2%상승률) · $[(218/198) \times (1,447,689)] \times 1.02 = 1,625,784$ 명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을 적용하여 수혜인원 전년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수혜자 만족도	전년 결과(82.7점) × 1.02(2% 상승) = 84.4점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 적용하여 수혜자 만족도 상향 적용
인지도	10년 인지도 50% 목표로 하여 올해 인지도 목표는 전년대비 10% 상승 · 전년 결과(40.3%) × 1.1(10% 상승) = 44.3%	전년도 10% 상승, 2010년까지 인지도 50% 이상 장기 목표 수립
예산대비 1인당 기회비용	(전년 예산/수혜인원) > (올해 예산/수혜인원)	전년대비 1인당 비용 절감하여 비용 효과성을 상향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속해 있는 만큼 자체 평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 성과지표의 산출을 위한 주 항목들을 주요 통계항목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문예진흥기금내 사업의 통계항목들을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3. 소외계층 문화순회

- 소외계층 문화순회(신나는 예술여행)사업은 엄선한 양질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지역과 계층을 예술단체가 직접 찾아가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의 향기를 전국 방방곡곡에 전파하여 시민들에게 밝은 웃음과 희망을 선사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속해 있다.
-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은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생활속의 예술 활성화’로 단위사업에 속해있으며, ‘문화소외지역, 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평가지표로는 ‘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 ‘성과 및 환류’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었으나 2010년, 2011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변경되었다.
- 2009년, 2010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 평가지표에서는 ‘사업목적’ 부문에서는 3개의 공통지표를 사용하고,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5개의 지표, ‘사업성과’ 부문에서는 4개의 지표, ‘환류체계’ 부문에서는 2개의 특성화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지표에 따라 ‘계량’, ‘비계량’, ‘계량/비계량’으로 구성되어있다.
- 2011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 평가지표는 기존 지표(2009, 2010년)에서보다 체계화된 지표로 바뀌었는데, ‘사업목적’ 부문에서는 3개의 지표에서 4개의 지표로 ‘목표’ 부문이 추가 되었고,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4개 지표로 축소되었다. ‘사업성과’ 부문에서는 3개의 지표로 축소되었으며 ‘환류체계’ 부문에서는 평가보고서작성 부분이 모니터링제도로 바뀌었다. 지표에 따라 ‘계량’, ‘비계량’, ‘계량/비계량’으로 구성되어있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성과지표	산식 및 산출근거	산출근거설명
PCSI	전년 결과(78.9점) × 1.02(2% 상승) = 80.0점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을 적용하여 만족도 전년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수혜인원	$\begin{aligned} & (\text{올해 예산/전년 예산}) \times (\text{전년 수혜인원}) \times 1.02(2\% \text{상승률}) \\ & \cdot [(218/198) \times (1,447,689)] \times 1.02 = 1,625,784 \text{명} \end{aligned}$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을 적용하여 수혜인원 전년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수혜자 만족도	전년 결과(82.7점) × 1.02(2% 상승) = 84.4점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 적용하여 수혜자 만족도 상향 적용
인지도	$\begin{aligned} & 10\text{년 인지도 } 50\% \text{ 목표로 하여 올해 인지도 목표는 전년대비 } 10\% \text{ 상승} \\ & \cdot \text{전년 결과}(40.3\%) \times 1.1(10\% \text{ 상승}) = 44.3\% \end{aligned}$	전년도 10% 상승, 2010년까지 인지도 50% 이상 장기 목표 수립
예산대비 1인당 기회비용	(전년 예산/수혜인원) > (올해 예산/수혜인원)	전년대비 1인당 비용 절감하여 비용 효과성을 상향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속해 있는 만큼 자체 평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 성과지표의 산출을 위한 주 항목들을 주요 통계항목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문예진흥기금내 사업의 통계항목들을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4. 전통나눔

- 전통나눔 사업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전통문화를 통해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스스로없이 동참하여 문화를 향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전통예술 관련 공연 및 DVD 제작, 청소년의 전통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속해 있다.
- 전통나눔사업은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생활속의 예술 활성화’ 로 단위사업에 속해있으며, ‘문화소외지역, 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평가지표로는 ‘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 ‘성과 및 환류’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었으나 2010년, 2011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변경되었다.
- 2009년, 2010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 평가지표 에서는 ‘사업목적’ 부문에서는 3개의 공통지표를 사용하고,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5개의 지표, ‘사업성과’ 부문에서는 4개의 지표, ‘환류체계’ 부문에서는 2개의 특성화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지표에 따라 ‘계량’ , ‘비계량’ , ‘계량/비계량’ 으로 구성되어있다.
- 2011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 평가지표는 기존 지표(2009, 2010년)에서보다 체계화된 지표로 바뀌었는데, ‘사업목적’ 부문에서는 3개의 지표에서 4개의 지표로 ‘목표’ 부문이 추가 되었고, ‘사업운영’ , 부문에서는 4개 지표로 축소되었다. ‘사업성과’ 부문에서는 3개의 지표로 축소되었으며 ‘환류체계’ 부문에서는 평가보고서작성 부분이 모니터링제도로 바뀌었다. 지표에 따라 ‘계량’ , ‘비계량’ , ‘계량/비계량’ 으로 구성되어있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성과지표	산식 및 산출근거	산출근거설명
PCSI	전년 결과(78.9점) × 1.02(2% 상승) = 80.0점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을 적용하여 만족도 전년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수혜인원	$\begin{aligned} & (\text{올해 예산/전년 예산}) \times (\text{전년 수혜인원}) \times 1.02(2\% \text{상승률}) \\ & \cdot [(218/198) \times (1,447,689)] \times 1.02 = 1,625,784 \text{명} \end{aligned}$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을 적용하여 수혜인원 전년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수혜자 만족도	전년 결과(82.7점) × 1.02(2% 상승) = 84.4점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 적용하여 수혜자 만족도 상향 적용
인지도	$\begin{aligned} & 10\text{년 인지도 } 50\% \text{ 목표로 하여 올해 인지도 목표는 전년대비 } 10\% \text{ 상승} \\ & \cdot \text{전년 결과}(40.3\%) \times 1.1(10\% \text{ 상승}) = 44.3\% \end{aligned}$	전년도 10% 상승, 2010년까지 인지도 50% 이상 장기 목표 수립
예산대비 1인당 기회비용	(전년 예산/수혜인원) > (올해 예산/수혜인원)	전년대비 1인당 비용 절감하여 비용 효과성을 상향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속해 있는 만큼 자체 평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 성과지표의 산출을 위한 주 항목들을 주요 통계항목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문예진흥기금내 사업의 통계항목들을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5. 지방문예회관특별프로그램지원

- 지방문예회관 특별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은 지방문예회관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문예회관연합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공연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방문예회관이 유치하는 프로그램의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과 문예회관이 자체적으로 제작·운영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방문예회관특별프로그램지원사업은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생활 속의 예술 활성화’ 로 단위사업에 속해있으며, ‘문화소외지역, 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평가지표로는 ‘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 ‘성과 및 환류’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었으나 2010년, 2011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변경되었다.
- 2009년, 2010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 평가지표에서는 ‘사업목적’ 부문에서는 3개의 공통지표를 사용하고,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5개의 지표, ‘사업성과’ 부문에서는 4개의 지표, ‘환류체계’ 부문에서는 2개의 특성화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지표에 따라 ‘계량’, ‘비계량’, ‘계량/비계량’ 으로 구성되어있다.
- 2011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 평가지표는 기존 지표(2009, 2010년)에서보다 체계화된 지표로 바뀌었는데, ‘사업목적’ 부문에서는 3개의 지표에서 4개의 지표로 ‘목표’ 부문이 추가 되었고,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4개 지표로 축소되었다. ‘사업성과’ 부문에서는 3개의 지표로 축소되었으며 ‘환류체계’ 부문에서는 평가보고서작성 부분이 모니터링제도로 바뀌었다. 지표에 따라 ‘계량’, ‘비계량’, ‘계량/비계량’ 으로 구성되어있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성과지표	산식 및 산출근거	산출근거설명
PCSI	전년 결과(78.9점) × 1.02(2% 상승) = 80.0점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을 적용하여 만족도 전년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수혜인원	$\begin{aligned} & (\text{올해 예산/전년 예산}) \times (\text{전년 수혜인원}) \times 1.02(2\% \text{상승률}) \\ & \cdot [(218/198) \times (1,447,689)] \times 1.02 = 1,625,784 \text{명} \end{aligned}$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을 적용하여 수혜인원 전년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수혜자 만족도	전년 결과(82.7점) × 1.02(2% 상승) = 84.4점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 적용하여 수혜자 만족도 상향 적용
인지도	$\begin{aligned} & 10\text{년 인지도 } 50\% \text{ 목표로 하여 올해 인지도 목표는 전년대비 } 10\% \text{ 상승} \\ & \cdot \text{전년 결과}(40.3\%) \times 1.1(10\% \text{상승}) = 44.3\% \end{aligned}$	전년도 10% 상승, 2010년까지 인지도 50% 이상 장기 목표 수립
예산대비 1인당 기획비용	(전년 예산/수혜인원) > (올해 예산/수혜인원)	전년대비 1인당 비용 절감하여 비용 효과성을 상향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속해 있는 만큼 자체 평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 성과지표의 산출을 위한 주 항목들을 주요 통계항목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문예진흥기금내 사업의 통계항목들을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6. 문학나눔

- 문학나눔은 문화예술의 뿌리이자 창조적 상상력의 모태인 문학의 향기를 온 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문학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독자, 문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독자 그리고 늘 문학과 함께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속해있다.
- 문학나눔사업은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생활속의 예술 활성화’로 단위사업에 속해있으며, ‘문화소외지역, 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평가지표로는 ‘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 ‘성과 및 환류’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었으나 2010년, 2011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변경되었다.
- 2009년, 2010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 평가지표에서는 ‘사업목적’ 부문에서는 3개의 공통지표를 사용하고,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11개의 지표, ‘사업성과’ 부문에서는 4개의 지표, ‘환류체계’ 부문에서는 2개의 특성화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지표에 따라 ‘계량’, ‘비계량’, ‘계량/비계량’으로 구성되어있다.
- 2011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 평가지표는 기존 지표(2009, 2010년)에서보다 체계화된 지표로 바뀌었는데, ‘사업목적’ 부문에서는 3개의 지표에서 4개의 지표로 ‘목표’ 부문이 추가되었고,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6개 지표로 축소되었다. ‘사업성과’ 부문에서도 3개의 지표로 축소되었으며 ‘환류체계’ 부문에서는 평가보고서작성 부분이 모니터링제도로 바뀌었다. 지표에 따라 ‘계량’, ‘비계량’, ‘계량/비계량’으로 구성되어있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성과지표	산식 및 산출근거	산출근거설명
PCSI	전년 결과(78.9점) × 1.02(2% 상승) = 80.0점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을 적용하여 만족도 전년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수혜인원	(올해 예산/전년 예산) × (전년 수혜인원) × 1.02(2%상승률) · [(218/198) × (1,447,689)] × 1.02 = 1,625,784명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을 적용하여 수혜인원 전년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수혜자 만족도	전년 결과(82.7점) × 1.02(2% 상승) = 84.4점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 적용하여 수혜자 만족도 상향 적용
인지도	10년 인지도 50% 목표로 하여 올해 인지도 목표는 전년대비 10% 상승 · 전년 결과(40.3%) × 1.1(10% 상승) = 44.3%	전년도 10% 상승, 2010년까지 인지도 50% 이상 장기 목표 수립
예산대비 1인당 기회비용	(전년 예산/수혜인원) > (올해 예산/수혜인원)	전년대비 1인당 비용 절감하여 비용 효과성을 상향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속해 있는 만큼 자체 평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 성과지표의 산출을 위한 주 항목들을 주요 통계항목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문예진흥기금내 사업의 통계항목들을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7. 공공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프로그램 지원

- 공공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 프로그램 지원은 우수한 지역 문화 인프라 시설인 박물관·미술관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소외계층에게 수준 높은 특별전시(교육, 체험 프로그램 포함)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단순한 전시 감상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이 적극적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관람객과 함께 호흡하는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며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속해있다.
- 공공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생활속의 예술 활성화’ 로 단위사업에 속해있으며, ‘문화소외지역, 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평가지표로는 ‘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 ‘성과 및 환류’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었으나 2010년, 2011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변경되었다.
- 2009년, 2010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 평가지표에서는 ‘사업목적’ 부문에서는 3개의 공통지표를 사용하고,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5개의 지표, ‘사업성과’ 부문에서는 4개의 지표, ‘환류체계’ 부문에서는 2개의 특성화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지표에 따라 ‘계량’ , ‘비계량’ , ‘계량/비계량’ 으로 구성되어있다.
- 2011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 평가지표는 기존 지표(2009, 2010년)에서보다 체계화된 지표로 바뀌었는데, ‘사업목적’ 부문에서는 3개의 지표에서 4개의 지표로 ‘목표’ 부문이 추가 되었고, ‘사업운영’ , 부문에서는 4개 지표로 축소되었다. ‘사업성과’ 부문에서는 3개의 지표로 축소되었으며 ‘환류체계’ 부문에서는 평가보고서작성 부분이 모니터링제도로 바뀌었다. 지표에 따라 ‘계량’ , ‘비계량’ , ‘계량/비계량’ 으로 구성되어있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성과지표	산식 및 산출근거	산출근거설명
PCSI	전년 결과(78.9점) × 1.02(2% 상승) = 80.0점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을 적용하여 만족도 전년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수혜인원	$\begin{aligned} & (\text{올해 예산/전년 예산}) \times (\text{전년 수혜인원}) \times 1.02(2\% \text{상승률}) \\ & \cdot [(218/198) \times (1,447,689)] \times 1.02 = 1,625,784 \text{명} \end{aligned}$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을 적용하여 수혜인원 전년대비 상향 목표치 설정
수혜자 만족도	전년 결과(82.7점) × 1.02(2% 상승) = 84.4점	전년 결과치를 기준으로 의욕적인 2% 상승률 적용하여 수혜자 만족도 상향 적용
인지도	$\begin{aligned} & 10\text{년 인지도 } 50\% \text{ 목표로 하여 올해 인지도 목표는 전년대비 } 10\% \text{ 상승} \\ & \cdot \text{전년 결과}(40.3\%) \times 1.1(10\% \text{ 상승}) = 44.3\% \end{aligned}$	전년도 10% 상승, 2010년까지 인지도 50% 이상 장기 목표 수립
예산대비 1인당 기획비용	(전년 예산/수혜인원) > (올해 예산/수혜인원)	전년대비 1인당 비용 절감하여 비용 효과성을 상향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속해 있는 만큼 자체 평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 성과지표의 산출을 위한 주 항목들을 주요 통계항목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문예진흥기금내 사업의 통계항목들을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8.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는 21세기 우리사회 새 마음, 새 문화운동으로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읍·면·동 단위에서 함께 만나고, 교류하며 지역 고유의 특색에 맞는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임대아파트 단지 등 문화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가 한 편의 영화 혹은 공연이 되어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우리 동네가 무대가 되는 프로그램, 이웃들이 사랑방에 모여 시를 만들고 낭독하며 삶을 풍요롭게 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속해있다.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사업은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생활속의 예술 활성화’로 단위사업에 속해있으며, ‘문화소외지역, 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9년 평가지표로는 ‘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 ‘성과 및 환류’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었으나 2010년, 2011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변경되었다.
- 2009년, 2010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 평가지표에서는 ‘사업목적’ 부문에서는 3개의 공통지표를 사용하고,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5개의 지표, ‘사업성과’ 부문에서는 4개의 지표, ‘환류체계’ 부문에서는 2개의 특성화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지표에 따라 ‘계량’, ‘비계량’, ‘계량/비계량’으로 구성되어있다.
- 2011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 평가지표는 기존 지표(2009, 2010년)에서보다 체계화된 지표로 바뀌었는데, ‘사업목적’ 부문에서는 3개의 지표에서 4개의 지표로 ‘목표’ 부문이 추가 되었고,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4개 지표로 축소되었다. ‘사업성과’ 부문에서는 3개의 지표로 축소되었으며 ‘환류체계’ 부문에서는 평가보고서작성 부분이 모니터링제도로 바뀌었다. 지표에 따라 ‘계량’, ‘비계량’, ‘계량/비계량’으로 구성되어있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속해 있는 만큼 자체 평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 성과지표의 산출을 위한 주 항목들을 주요 통계항목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문예진흥기금내 사업의 통계항목들을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9. 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지원

-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지원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 각 분야의 장애 예술가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장애 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의 예술적 성과와 가치에 대한 연구와 자료 구축 및 보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 교육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속해있다.
- 장애인창작및표현활동지원은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을 때는 ‘장애인 문화접근성 확대지원사업’에 속해있으며, 2009년 평가지표로는 ‘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 ‘성과 및 환류’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었으나 2010년, 2011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변경되었다.
- 2009년, 2010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 평가지표에서는 ‘사업목적’ 부문에서는 3개의 공통지표를 사용하고,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5개의 지표, ‘사업성과’ 부문에서는 4개의 지표, ‘환류체계’ 부문에서는 2개의 특성화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지표에 따라 ‘계량’, ‘비계량’, ‘계량/비계량’으로 구성되어있다.
- 2011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평가연구 평가지표는 기존 지표(2009, 2010년)에서보다 체계화된 지표로 바뀌었는데, ‘사업목적’ 부문에서는 3개의 지표에서 4개의 지표로 ‘목표’ 부문이 추가 되었고,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4개 지표로 축소되었다. ‘사업성과’ 부문에서는 3개의 지표로 축소되었으며 ‘환류체계’ 부문에서는 평가보고서작성 부분이 모니터링제도로 바뀌었다. 지표에 따라 ‘계량’, ‘비계량’, ‘계량/비계량’으로 구성되어있다.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에 속해 있는 만큼 자체 평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위 성과지표의 산출을 위한 주 항목들을 주요 통계항목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문예진흥기금내 사업의 통계항목들을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제3절 기타사업

1. 아르코미술관운영

- 아르코미술관운영은 민간 영역과 공공성의 조화(공공성, 비영리성, 창조성, 실험성)이라는 특화된 사업 영역으로, 미술관의 정체성 정립과 위상 강화를 위해 적절한 방향설정과 타 미술관과의 차별성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전략과 미술관으로써의 기능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 아르코미술관운영은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예술현장의 기반조성’로 단위사업에 속해있다. 또한 ‘예술창작 거점공간의 활성화 및 창작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9년 평가지표로는 ‘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 ‘성과 및 환류’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었으나 2010년, 2011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변경되었다.
- 미술관의 운영 실적은 전시, 연구, 기타의 세 개 영역에 따라 파악한다. 전시의 경우 전시별로 전시 운영기간, 전시 공간의 활용 규모, 참여 작가 수, 해외 작가 참여 여부, 참여 작품 수, 관람객 수, 관람객 만족도 등을 조사해 반영한다. 만족도 조사에 사용되는 조사표는 다른 시각예술 사업 평가에서 활용되는 것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전시의 경우 홍보 실적이나 비평 수 등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연구에 있어서는 워크숍, 세미나, 매체 발간 등에 있어서의 실적을 건수를 기준으로 파악해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 영역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예술 행사 등 부가적인 사업의 건수와 특징점을 파악해 두면 추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장기적으로는 본 절에 포함된 문화나눔 관련 영역처럼 별도의 연구 영역을 통해 기관 운영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성과지표	산식 및 산출근거	산출근거설명
이용자 만족도 (점)	전년도 만족도+(전년도만족도x만족도 개선율)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과거 실적 및 추세 등을 감안하고 이용자만족도임을 감안하여 80점대 진입을 목표로 4.5% 개선율을 적용
이용자수(명)	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x당해연도 성과변동률) —성과향상도 도출 : (전년도 예산변동률 : 전년도 성과변동률=당해연도 예산변동률 : 당해연도 성과변동률)=20.9%:30.2%=5.4%:x, x=7.8% —목표치 설정=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x당해연도 성과변동률)=281,434명+(281,434x7.8%)=303,385명	*'09년 동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5.4% 증액됨. '08년도에 동사업은 예산증가율의 1.46배에 달하는 성과향상율을 보임. 이에 전년대비 예산증가율 및 성과향상도를 고려, 전년 대비 7.9% 증가한 303,000명을 목표로 설정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2. 예술인력개발원운영

- 예술인력개발원운영은 무대공연예술 분야의 현장적용성이 높은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술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무대·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 예술인력개발원운영은 문예진흥기금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예술현장의 기반조성’로 단위사업에 속해있다. 또한 ‘예술창작 거점공간의 활성화 및 창작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9년 평가지표로는 ‘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 ‘성과 및 환류’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었으나 2010년, 2011년 평가지표로는 ‘사업계획’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계획’ 부문에서 2개의 평가지표, ‘집행’ 부문에서 3개의 평가지표, ‘성과’ 부문에서 4개의 평가지표로 변경되었다.

성과지표	산식 및 산출근거	산출근거설명
이용자 만족도 (점)	전년도 만족도+(전년도만족도x만족도 개선율)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	-과거 실적 및 추세 등을 감안하고 이용자만족도임을 감안하여 80점대 진입을 목표로 4.5% 개선율을 적용
이용자수(명)	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x당해연도 성과변동률) -성과향상도 도출 : (전년도 예산변동률 : 전년도 성과변동률=당해연도 예산변동률 : 당해연도 성과변동률)=20.9%:30.2%=5.4%:x, x=7.8% -목표치 설정=전년도 실적+(전년도 실적x당해연도 성과변동률)=281,434명+(281,434x7.8%)=303,385명	*'09년 동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5.4% 증액됨. '08년도에 동 사업은 예산증가율의 1.46배에 달하는 성과향상율을 보임. 이에 전년대비 예산증가율 및 성과향상도를 고려, 전년 대비 7.9% 증가한 303,000명을 목표로 설정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 장기적으로는 본 절에 포함된 문화나눔 관련 영역처럼 별도의 연구 영역을 통해 기관 운영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3. 예술나눔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73년부터 국내 문화예술분야 기부금 제도를 운영, 문예진흥기금 기부금 제도를 통해 1973년부터 2010년 까지 약 1,596억원이 모금되어 예술인·단체에 지원됨으로써 다양한 사업에 활용해 오고 있다.
- 2010년부터는 문화예술 사회공헌의 활성화와 예술 나눔의 확산을 위해 문화예술 기부문화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민간과 공공의 기부 및 나눔 활성화를 위한 기부시장(fundraising market) 토대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부금 제도는 순수기부, 조건부기부, 실명제기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 또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다.
- 문화예술 분야의 나눔 활동에 대한 헤드쿼터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2년부터 자체 설문조사와 자료 조사를 통해 국내의 문화예술 나눔 활동에 대한 주요 통계와 지표를 유지, 관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앞서 언급된 두 분야와 달리 매우 상세한 지표와 이에 필요한 통계항목들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 아르크예술기부인덱스(가칭)는 총 77개의 통계·지표로 구성됨. 성별, 연령, 직업, 지역, 결혼여부, 자녀유무(취업 전 자녀 수) 등 인구 통계학적 변수 6개와 월 평균 문학 분야 독서권수, 월 평균 전시 관람 횟수, 월 평균 공연 관람 횟수, 월 평균 문화예술 분야 지출규모 등 문화예술 향유도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4개, 본 지표 67개로 구성된다.

〈표〉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생산하는 예술기부지표의 예

연번	지표	비고
1	문화예술지원기관·문화예술단체의 회계자료	회계정보를 공시하는 기관단체의 자료를 통해 기부금 모집액을 확인할 수 있음 문화예술지원기관의 연간 기부후원금 수입, 박물관미술관공연장의 연간 기부후원금 수입, 문화예술 단체의 연간 기부후원금 수입 등 포함
2	문화예술분야 자원 활동 참여 여부	문화예술 관련 분야 자원 활동 참여 여부
3	문화예술분야 자원 활동 활동처	기관/축제/문화예술단체/기타로 구분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연번	지표	비고
4	연간 문화예술분야 자원 활동 참여 횟수	어느 정도 자원 활동에 참여했는지 횟수를 기록
5	연간 문화예술분야 자원 활동 기간	어느 정도 자원 활동에 참여했는지 기간을 기록
6	정기적 문화예술분야 자원 활동 참여 여부	문화예술 관련 분야 자원 활동 정기적 참여 여부
7	정기적 문화예술분야 자원 활동 참여 빈도	주단위/월단위/분기단위/반기단위/연단위 중 선택해 질문
8	문화예술분야 자원 활동 방법	단순자원활동/전문자원활동(pro bono)/두 가지 모두 전문자원활동 : 법률, 재정, 회계, 의료, 통역 등 전문 분야
9	문화예술분야 전문 자원 활동 분야	전문 활동 분야를 직접 기록하도록 해서 추후 범주화
10	문화예술분야 자원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이유를 직접 기록하도록 해서 추후 범주화
11	예술기부 참여 여부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부 참여 여부
12	예술기부 기부처 1	박물관미술관공연장/문화예술축제/문화예술단체/ 작가예술가개인/기타 등으로 구분
13	예술기부 대상 별 신뢰도 1 박물관	기부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7점 척도로 측정
14	예술기부 대상 별 신뢰도 2 미술관	기부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7점 척도로 측정
15	예술기부 대상 별 신뢰도 3 공연장	기부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7점 척도로 측정
16	예술기부 대상 별 신뢰도 4 문화예술축제	기부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7점 척도로 측정
17	예술기부 대상 별 신뢰도 5 문화예술단체	기부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7점 척도로 측정
18	예술기부 대상 별 신뢰도 6 작가 개인	기부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7점 척도로 측정
19	예술기부 대상 별 신뢰도 7 예술가 개인	기부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7점 척도로 측정
20	예술기부 기부처 2	문화예술일반/문학/시각예술/공연예술(국악/양악/연극/ 무용)/기타
21	연간 예술기부 금액	기부 규모를 금액 단위로 파악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연번	지표	비고
22	연간 회당 예술기부 금액	1회에 기부하는 규모를 금액 단위로 파악
23	예술기부액 확대 의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를 확대할 계획을 5점 척도로 측정
24	정기적 예술기부 참여 여부	문화예술 관련 분야 기부 정기적 참여 여부
25	정기적 예술기부 참여 빈도	주단위/월단위/분기단위/반기단위/연단위 중 선택해 질문
26	예술기부 기부처 인지 경로	기부한 곳을 통해/대중매체/온라인매체/가족지인/기타
27	예술기부 방법	직접전달/수표카드/지로납부/자동이체/온라인뱅킹/급여공제/현물/장소대여/기타 등
28	예술기부의 내적 동기	기부에 참여한 동기를 직접 기록하도록 해서 추후 범주화
29	예술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이유를 직접 기록하도록 해서 추후 범주화
30	예술기부 참여 의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에 참여할 의사를 5점 척도로 측정
31	예술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1 지원대상이 속한 장르 1	기부 결정 시 해당 항목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5점 척도로 측정(예술기부 기부처 1 참조)
32	예술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2 지원대상이 속한 장르 2	기부 결정 시 해당 항목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5점 척도로 측정(예술기부 기부처 2 참조)
33	예술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3 지원 대상 신뢰도	기부 결정 시 해당 항목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5점 척도로 측정
34	예술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4 지원 대상 전문적 역량	기부 결정 시 해당 항목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5점 척도로 측정
35	예술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5 지원 대상 명성	기부 결정 시 해당 항목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5점 척도로 측정
36	예술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6 활동 내역 투명성	기부 결정 시 해당 항목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5점 척도로 측정
37	예술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7 기부액 선택 가능성	기부 결정 시 해당 항목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5점 척도로 측정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연번	지표	비고
38	예술기부 결정 시 고려사항 8 방법의 용이성	기부 결정 시 해당 항목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5점 척도로 측정
39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유산 기부 의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유산 기부 의사를 5점 척도로 측정
40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유산 기부 희망 비율	유산의 몇 %를 문화예술 분야에 기부하고 싶은지 질문
41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유산 기부 희망 형태	현금/부동산/물품/금융자산/기타
42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유산 기부 장애 요인	장애요인을 직접 기록하도록 해서 추후 범주화
43	예술기부 시 인터넷 활용 경험	인터넷을 활용해 문화예술 분야에 기부한 경험을 질문
44	예술기부 시 인터넷 활용도 1 기부 대상 탐색	해당 항목에 인터넷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5점 척도로 측정
45	예술기부 시 인터넷 활용도 2 대상 관련 정보 습득	해당 항목에 인터넷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5점 척도로 측정
46	예술기부 시 인터넷 활용도 3 금액 선택과 결제	해당 항목에 인터넷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5점 척도로 측정
47	예술기부 시 인터넷 활용도 4 기부 후 피드백	해당 항목에 인터넷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5점 척도로 측정
48	예술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필요한 것을 직접 기록하도록 해서 추후 범주화
49	세액 공제 신고 여부	기부를 하고 세액 공제를 신청했는지 질문

- 이러한 개인 기부자 조사를 통한 지표와 별개로 전경련의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 백서와 한국메세나협회의 연차보고서를 활용해 총 10개의 기업기부자 관련 지표 활용한다.

제3장 사업별 주요 통계항목

〈표 4-9〉 예술기부지표이면서 외부생산될 수 있는 통계지표(10개)

연번	지표	비고
1	기부금품 사용 희망분야 중 문화예술 분야 비중	출처 : 유한킴벌리 기빙인덱스
2	기업 사회공헌활동 중 문화예술+체육 지출 비중	출처 :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3	기업 사회공헌활동 중 문화예술+체육 기부현황 및 참여율	출처 :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4	메세나 지원 기업 수	출처 :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5	메세나 지원 금액	출처 :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6	메세나 지원 건수	출처 :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7	분야별 기업 지원 금액	국악/서양음악/무용/연극/뮤지컬/미술 전시/문학/인프라/전통예술/영상미디어/문화예술교육/기타 출처 :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8	지원 유형별 금액	자체(행사)기획/후원및협찬,파트너십/조건부기부 출처 :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9	문화예술 지원 방식	자금/인력/장소/기술지원/현물 출처 :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10	산업군별 지원 금액	재단/조선중공업/금융보험/정보통신/전기전자/자동차/화학제약/공공/유통/식음료/건설/미디어/숙박·레저/운수/문구·가구·출판/생활용품기기/의류·잡화/제자시멘트/서비스기타 출처 :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 이를 전산 상에서 구축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자체적으로 자료가 축적되는 지정기부금 관련 자료를 제외한 개인 기부자 통계·지표 및 기업 기부자 통계·지표는 조사 종료 시 또는 관련 자료 발표 시 지정된 담당자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조사 결과를 입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전산지원

제4장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전산지원

제1절 : 현행 통계 작성 프로세스의 문제점과 개선

1. 현행 통계 작성 프로세스의 문제점
2. 외부 요청 자료 작성 방식의 개선

제2절 : 전사적자료관리시스템 및 BI 구축 사례와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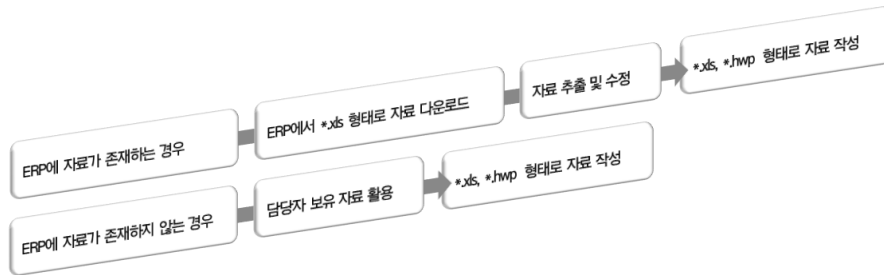
1. BI 솔루션 벤더의 현황 및 전망
2. BI와 빅 데이터 분석
3. ARKO BI 구축 시 고려사항
4. BI와 빅 데이터의 활용 사례
5. 데이터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와 대시보드 중심 BI

제4장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전산지원

제1절 현행 통계작성 프로세스의 문제점과 개선

1. 현행 통계작성 프로세스의 문제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내외부 평가나 자료요청 시 활용하는 현행 통계작성 프로세스는 다음그림과 같다.



- ERP 상에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자료를 다운 받아서, 요청된 자료의 형식과 통계 항목에 맞추어 최종적인 통계를 작성한다. 이는 실제 통계 자료의 수준을 실무자 개인의 역량 수준에 맡긴다는 것 말고도 업무에 대한 전산 지원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 ① ERP는 제한된 형태의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일방향으로만 이용된다.
 - ② 자료 활용 시 ERP 상의 자료의 최신성,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나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 ③ ERP 상의 전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DB에는 데이터 수준의 자료만이 남고, 최종적으로 가공된 중요한 정보 또는 지식은 작성한 실무자 개인의 개인 하드디스크에 분산되어 저장, 관리된다.
 - ④ 최종 통계 작성 시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사용한 중요한 가이드라인 및 작성원칙은 실무자 개인의 기억으로만 남는다.
 - ⑤ 충실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일한 자료라 하더라도 매번 새로운 담당자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 재작성한다.

제4장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전산지원

2. 외부 요청 자료 작성 방식의 개선

- 외부 요청 자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의 국회 요청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규모는 한 해 대략 500~1,000건에 이른다. 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진행 중인 업무에 큰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수준의 업무량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7월 25.9%, 8월 61%, 9월 13.1% 수준으로 세 달에 집중되는 까닭에 그 강도는 더하다.

자료요청시기	요청자료건수	비율
7월	137	25.9%
8월	322	61.0%
9월	69	13.1%
계	528	100%

- 국감 기간 중 국회 요청 자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요청 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영 일반에 기관 통계 성격의 자료다. 요청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9년 81.7%, 2010년 78.2%, 2011년 82.4%에 달한다. 경영 일반에 대한 자료에는 인사, 급여, 성과평가, 예결산, 이사회 운영실적·회의록, 감사, 직원 해외출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기관 통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문예진흥기금과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이다. 대개의 경우 매해의 특정한 이슈와 관계있는 사업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는 편이지만, 관심 지역 또는 관심 수혜대상별 지원 현황 등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 원칙적인 입장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선 방식은 이러한 자료의 다양한 특성과 비교적 무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기관의 운영 및 지원사업과 관련된 가능한 모든 원자료들을 3장에서 언급된 통계항목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해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기관의 운영이나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자료는 그대로 자료가 통합, 생성되도록 시스템

제4장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전산지원

을 설계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처럼 진행 과정과 별도로 만들어지는 자료들은 자료의 입력과 작성책임을 기초로 일정 시점별로 입력되도록 정하게 된다. 중요 자료의 경우 개별 담당자가 도큐먼트나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작성하는 일이 사라지는 것이다. 모든 자료의 입력과 가공, 출력은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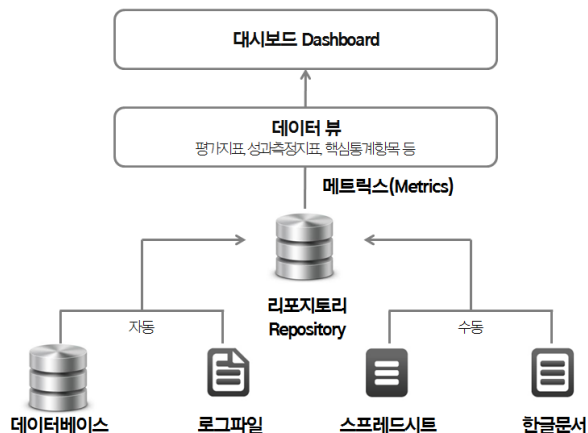
- 데이터베이스 상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자체적인 자료 정리 및 분석툴을 적용시켜, 로그인 상태에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와 이를 필요에 따라 가공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파일형태로 출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출력된 결과는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자료로 분류되어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로 다시 저장된다. 저장 시에는 자료의 작성자(또는 자료 작성 책임자)가 이 자료를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해 작성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이를 위계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수평적으로 태그를 도입할 수도 있다) 의무적으로 남기게 해야 한다. 향후 동일한 자료를 다른 사용자가 찾을 경우 다시 새로운 자료를 가공할 필요 없이 이전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생성되는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개선은 현실에 있어서 바로 적용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비용이나 인력소요와 같은 요인뿐만 아니라, 과업 자체가 가진 어려움이 더 크다. 실제 기관 운영이나 사업 진행의 업무 과정에 대한 분석과 외부 요청자료의 특성을 기초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이를 개발한 뒤에는 그간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자료를 모두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추가적인 행정 소요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 이러한 개선 방향을 취할 경우 자료에 대한 기관의 전체적인 관리능력은 분명히 높아진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결국 일반 번거로워졌을 뿐 실제 사업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거나 도리어 늘었다는 내부 평가가 나타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사업 자체의 당위성과는 별도로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빅데이터 이전에 BI가 보다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용성(usability)의 문제다. 있으면 좋지만, 손이 너무 가는 바람에 도리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사태가 벌어지진 않아야 한다.

제4장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전산지원

- 빅 데이터의 부각과 함께 B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면에는 이러한 BI의 문제점을 별도의 자료 구축을 위한 일손을 덜 필요로 하는 빅 데이터를 통한 접근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듯 하다.
- 당장 이러한 근본적인 접근의 적용이 어렵다면,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외부 요청 자료의 특성을 감안해 기관 경영 일반에 관련된 사항과 지원 사업과 관련된 상황을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 경영 일반에 관련된 기관 통계는 지원 사업에 대한 요청 자료보다 대부분 자료의 관리와 작성에 있어 용이한 편이다. ERP 등을 통해 사전에 관리되고 있는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 더러, 자료의 오류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다.
- 경영 일반 관련 자료는 자료의 입력 보다는 자료의 활용 측면을 중심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 현재 ERP가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통계툴(tool)을 적용해 빈번히 활용되는 인사, 급여, 기관 운영 관련 통계를 실시간으로 자동적으로 계산해 내는 대시보드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동일한 자료에 기반하더라도 다양한 통계나 지표를 활용해 자동차의 계기판을 보듯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지원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관리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개선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현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예술인·단체에 대한 매우 방대한 양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표준화 및 코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체적으로 필요한 통계를 생성해 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해 경영 일반에 관련된 사항이 ERP를 통해 관리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 다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개선이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면, 잠정적인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원 사업과 관련해 빈번히 요청되는 값, 항목을 중심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자료를 어느 정도 ‘가공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개별 사업 담당자별로 각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포괄적인 자료를 일원화해 만들고, 모든 사업 담당자들이 그 포괄적인 자료를 필요에 따라 가공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제4장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전산지원

- 이러한 자료는 앞서 언급한 일원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스프레드 시트나 도큐먼트 형태로 저장된다. ERP 상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사업 담당자별로 자료를 가공하는 현행 방식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ERP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가난한’ 자료만이 아니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코드화되지 않아 집계 통계화하기 어려운 항목들에 대한 ‘풍요로운’ 자료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자료를 일정 시점별로 일원화해 생성한다는 점이다. 생성 작업을 사업 담당자들이 필요에 따라 그 때 그 때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인력을 투입해 텍스트 형태의 자료를 코드화하는 작업을 통해 통계적으로 풍성한 자료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중요하다.
- 이러한 개선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 일원화하는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데이터베이스 상에 통합되어 관리되는 자료만이 아니라, 현행처럼 개별적으로 작성되는 스프레드시트나 도큐먼트 형태의 자료 또한 함께 데이터베이스 상에 저장, 활용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의 급격한 일원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성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설계와 운영을 꾀하는 것이다.



- 이렇게 일원화된 데이터베이스와 개별 문서의 저장을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리포

제4장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전산지원

지토리를 설계할 경우, 한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스프레드시트나 한글 문서의 저장량이 많아질수록 그 정보를 찾아,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현행 ERP나 지식단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위계적으로 정해진 분류 체계에 따라 문서를 정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스프레드시트나 도큐먼트 형태로 저장되는 자료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다.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해당 문서가 속한 분류와 제목을 기준으로 검색한 뒤 방대한 문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 문서를 대상으로 원하는 정보가 검색되고 요약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문서의 분류(classification), 군집(clustering), 요약(summarization)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제4장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전산지원

제2절 전사적자료관리시스템 및 BI 구축 사례와 고려사항

1. BI 솔루션 벤더의 현황 및 전망

- 시장조사회사인 가트너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SAP, 오라클, SAS,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상위 5개사가 전 세계 BI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다. 업체별로는 SAP > 오라클 > SAS > IBM > 마이크로소프트 순의 시장 점유율을 보인다.
- BI 통합 솔루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를 살펴보면 BI 시장 초기에는 DW, OLAP, 데이터마이닝 등 단품으로 판매 되었었으나, 이후에는 점차 하나의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각 벤더 별로 차별화 되는 지점이 서로 다르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플랫폼에서는 SAP가 선두를 유지하는 반면 기업성과관리(CPM) 분야에서는 오라클이 기존의 하이페리온 솔루션에 힘입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SAS는 분석 애플리케이션과 성과관리 분야에서 리더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Office, SQL Server, PerformancePoint 등을 이용한 통합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제공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는데, 특히, SQL Server는 ETL, OLAP, 리포팅을 하나의 플랫폼 관점에서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다. 상위 5개사에 속하진 않지만,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개방형 BI 솔루션을 제공하는 독립벤더로 자리매김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OLAP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웹기능의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BM은 Cognos를 통해 기업 내 다양한 부서의 사용자들이 재무 부문부터 운영 부문에 걸쳐 모든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대시보드, 모바일 BI 검색기능이 강화된 코그노스 모바일 버전도 출시 중이다. 오라클은 단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별 애플리케이션의 공급에 역점을 뒤 금융, 제조,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고객사를 확보해 오고 있다.

제4장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전산지원

2. BI와 빅 데이터 분석

-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빅 데이터 분석기술⁸⁾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사실 기반의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데이터를 찾아내고 추출, 분석해서 비즈니스 영역의 의사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념과 컴퓨터 기반의 방법론을 일컫는 용어다. 이에 비해 빅 데이터 분석은 통계, 예측, 최적화를 기반으로 성능의 최적화, 향상된 계획,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정보를 지식 수준의 형태로 변화시켜 최종 사용자를 지원하는 프로세스와 도구로써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정보에 대한 액세스와 리포팅 중심의 BI에서 분석 중심의 BI로 변화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빅 데이터에 대한 논의와 BI의 논의가 중첩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 전통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의 분석기술과 빅 데이터 환경에서의 분석 기술의 차이는 목적의 차이에 있다. 전통적인 비즈니스 분석은 주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기술로 통용되며,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현재의 현상과 결과적인 관점을 제시하기 위한 시각적 구조화와 통계 기반의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빅 데이터에서의 분석 기능은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기반을 향후 비즈니스에서의 상황을 예측함으로써 비즈니스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분석 기법으로부터 한걸음 더 나아가 축적된 대용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을 필요로 한다.

8) Doug Laney와 IBM의 빅 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흔히 3Vs로 알려져 있다. 먼저 용량(Volume)은 조직에서 수집하고 저장, 관리, 분석해야 할 데이터가 수십 테라바이트를 넘어 수 페타바이트에 이를만큼 양이 방대하다는 특징을 의미한다. 속도(Velocity)는 수집되고 처리되어야 할 데이터에 대한 입력과 출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실시간적인 처리를 요함을 말한다. 다양성(Variety)은 분석해야 될 데이터가 기존에는 정형적인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빅 데이터에서는 정형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적인 데이터까지 데이터의 형태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4장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전산지원

3. ARKO BI 구축 시 고려사항

- BI를 지원하기 위한 솔루션의 성장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전사적지식포털(EKP) 등의 분석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는 DSS(Decision Support System)와 같은 비교적 전통적인 형태, 두 번째는 엄청난 양산 속도를 가진 SNS와 사용자생성콘텐츠(UGC)의 정성적인 분석을 통해 고객이나 소비자의 트렌드와 피드백을 분석·연구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이다. 두 분야 모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있어 매우 중요하겠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DSS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 데이터의 성격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는 것도 유용하다. 첫 번째는 데이터 자체가 의미가 있는, 사람의 인지능력으로 시간만 있다면 이해가 가능한 도큐먼트 자료(Document Data)가 있다. 도큐먼트 자료는 수량과 데이터의 저장 형식에 초점이 맞추어진 분야와 데이터가 가지는 의미와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진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는 비도큐먼트 데이터다. 단일 단위로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군집이 되었을 때 특정 패턴을 통해 숨은 의미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쇼핑 패턴, 위치 정보, 생산라인에서의 센서 정보(온도, 습도 등) 등을 이용한 사례가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도큐먼트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비도큐먼트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관된 데이터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원 사업에 응모하는 예술인·단체의 지원 패턴(장르, 지역, 성별 등에서) 등에 대한 비도큐먼트 데이터는 별도의 동향조사나 연구 없이도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예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제4장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전산지원

4. BI와 빅 데이터의 활용 사례

- 아직 문화예술 분야나 공공기관에서 기관운영에 있어 BI나 빅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많지 않다. 국내 기업에서도 빅 데이터의 붐을 타고 대시보드 성격의 BI를 구축하는 시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시작되고 있다.
- POSCO는 공정제어에 대시보드를 적용해 활용했다. SAS의 시스템을 통해 생산 공정별 온도, 습도, 압력, 성분 등의 비철강 부문 생산 전 과정의 모든 데이터를 0.001초 단위로 수집해 분석함으로써 불량률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6 시그마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프로젝트다. 이 외에도 가격변동이 큰 철광석 등 자원에 대한 적시 조달을 위해 최적 구매 시기와 가격대 결정을 위한 대시보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 대시보드에는 고객의 수요 데이터, 남미 및 호주 광산의 상황, 런던 금속 거래소의 광물 가격 데이터 등의 자료가 활용된다.
- SK텔레콤은 티맵 내비게이션, 상권 분석 서비스 등 빅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 서비스를 창출한 경우다. 티맵 내비게이션은 콜택시, 유료 운반차량, 고속버스 등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장착해서 실시간으로 전국 도로의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내비게이션이 내장된 지도와 길 안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과 달리, SK텔레콤 서버의 슈퍼컴퓨터가 실시간 정보를 토대로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를 계산하고 정확한 도착시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 지도와 연결된 유동인구, 업종별, 월별 매출 등 10여종의 정보로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이용자가 자영업 창업 희망자라면, 2,650만에 이르는 SK텔레콤 가입자 동선(유동인구), 3,000만에 이르는 OK캐쉬백 회원의 소비패턴, 현대카드 가맹점 결제, 부동산 114의 상권 시세 등의 데이터를 통해 업종별 매출 현황, 경쟁 매장, 잠재 수요 고객, 유동인구 등의 정보를 지도 상에서 직접 분석할 수 있기도 하다.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여론 분석을 위해 스마트 인사이트 시스템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의 한 예다.
- BI와 빅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에 정확히 해당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례로서 공공 부문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한국석유공사의 국내 유가 예보 서비스를 위한 비즈니스 최적화 프로젝트,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한 소통 활성화 프로젝

제4장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전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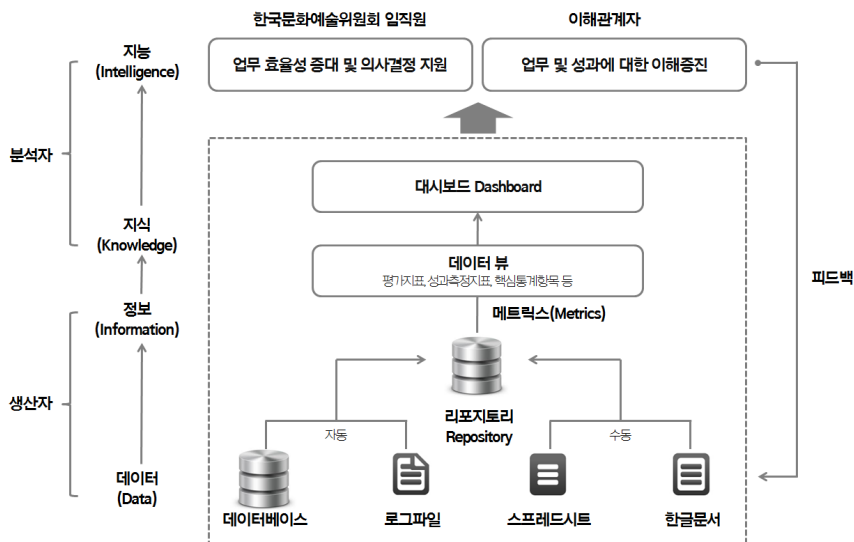
트, 통계청의 일자리 현황 파악 지원을 위한 임금근로일자리 통계 시스템, 물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스마트 워터 그리드 프로젝트 등을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꼽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서, 각종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기존의 서울 행정시스템(시·군·구 단위의 업무지원시스템) 중 복지 분야를 분리해 중앙에 통합 구축했다. 유사 중복 서식의 통합 및 공적 자료 대체를 통해 민원 서류를 37종에서 6종으로 줄이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에 따른 결정처리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결정과 동시에 SMS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지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분석하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소리 주간동향’ ‘월간동향’ 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241개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시스템만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위원회 내에 민원정보분석센터를 별도로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했다는 점에서 여느 프로젝트와 다른 접근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2013년 부터 민원정보분석시스템과 같은 빅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를 정책과제로 선별해 지원하고 추진할 예정이기도 하다.

제4장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전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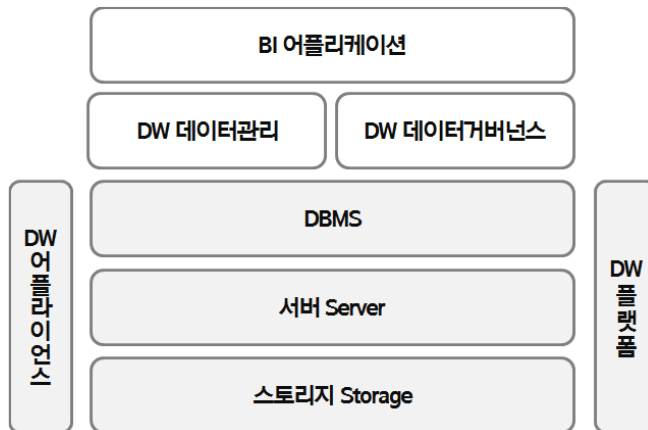
5. 데이터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와 대시보드 중심 BI

- 도큐먼트 중심의 DSS에 초점을 맞추어 BI를 구축해 나갈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적절한 BI 도입 방식은 실무자들이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스프레드시트, 한글 문서와 사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 로그파일이 통합 관리, 추출, 분석되는 데이터웨어하우스(DW)를 구축하고, 이를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틀의 대시보드로 활용하는 방안이라 보인다.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업무 프로세스와 환경을 감안했을 때, 실무자 수준에서 작성되는 개별 문서를 일시에 데이터베이스화 하거나 전사적자료관리시스템 내에서 권한 및 출납통제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요한 영역의 자료에 대해서는 실무자 개인이 작성, 관리하는 스프레드시트나 한글문서는 최소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필요는 있으나, 원천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급격히 변화시키긴 어렵다. 이러한 경우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문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텍스트 마이닝이 가능하도록 검색을 강화하는 접근을 병행해야 하면 얼마간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제4장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전산지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체적인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은 서버, 스토리지, DBMS를 각각 도입하는 방식보다는 데이터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와 같은 형태가 바람직하다. 데이터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는 하드웨어 영역인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함께 소프트웨어 영역인 DB 분석 솔루션을 하나의 꾸러미로 담고 있다. DB 분석 솔루션은 데이터웨어하우스의 생성과 관리,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온라인 분석 프로세스(OLAP), 데이터 마이닝, 분석 등 사용자 의사 결정을 위한 툴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전문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 지원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 데이터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는 엔터프라이즈 2.0, SOA 환경 하에서 개방성과 호환성이 강조되는 최근 트렌드와 배치되는 면이 있지만, 데이터웨어하우스 기능에 맞춰 스토리지와 DBMS를 최적화하였기 때문에 서버, 스토리지, DBMS를 별도로 도입해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축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고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DBMS나 운영체제, 하드웨어 등의 별도 관리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관리와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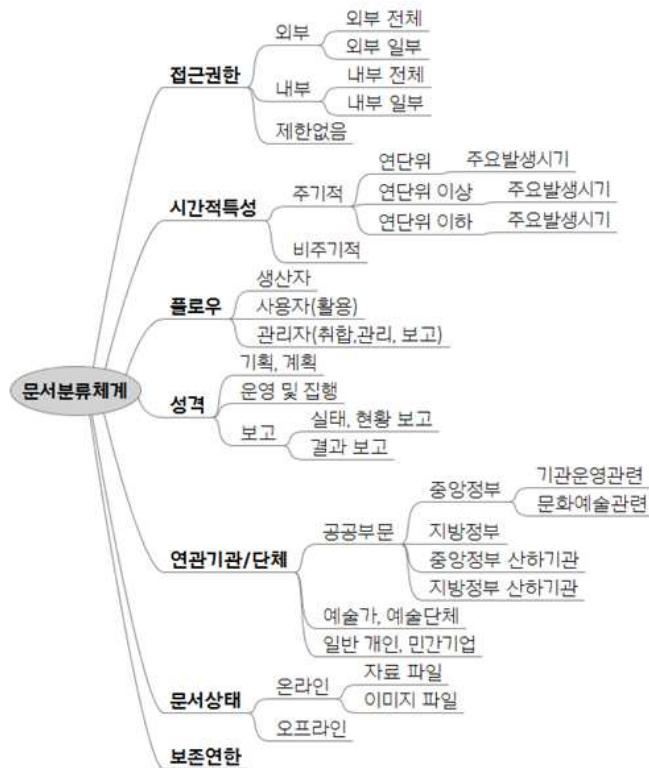
제4장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전산지원

기존 DW	구분	DW 어플라이언스
상대적 고가	초기 비용	저가
필수	성능 튜닝	최소 또는 필요없음
필수	데이터 모델링	최소
수 개월	구축기간	기존 방식의 1/4~1/3
DBMS, OS, 서버, 스토리지 등 별도 업그레이드 추가 비용 발생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계약으로 가능
DBMS, OS, 서버, 스토리지 등 별도 관리, 인력 필요	관리·인력	관리, 인력 최소

- 이러한 데이터웨어하우스 어플라이언스 쪽에서는 오라클과 IBM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오라클은 SUN Microsystems 인수 후 자사의 데이터베이스와 SUN의 하드웨어를 결합한 형태의 어플라이언스를 출시하고 있다. 필요한 만큼의 라이선스 초기 구매 후 필요에 따라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분석을 위해 아파치 하둡, 오라클 NoSQL DB, 하둡을 위한 오라클 데이터 통합 애플리케이션 어댑터, 오픈소스 배포판 'R'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머신(Oracle Exadata Database Machine), 오라클 엑사리틱스 BI 머신(Oracle Exalytics Business Intelligence Machine) 등과 쉽게 통합이 가능하며, 엔터프라이즈급의 성능, 가용성, 지원, 보안을 제공하면서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 IBM은 데이터웨어하우스 전문업체인 네티자를 인수합병해 자사의 DB와 DB 분석 솔루션을 결합하여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시스템을 제공한다. 어플라이언스 개념을 가장 먼저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적용한 만큼 어플라이언스의 개념에 가장 부합한다는 평을 받는다.

제4장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전산지원

- 데이터베이스 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생산되는 단위 문서자료는 다음의 7개 상위범주와 27개 하위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개의 개별 문서는 접근권한, 발생시점의 특성, 주요 연관 담당자, 문서의 성격, 문서와 연관된 기관·단체, 문서상태, 보존 연한 등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생성, 관리된다.



- 앞선 3장에서 언급된 통계·지표와 연관된 자료들은 ERP 상에서 자연스럽게 자료가 생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정해진 양식에 따라 해당 사업 담당자가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주기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도록 한다. 특정 통계 또는 지표를 활용해 사업 담당자 또는 관련자가 도큐먼트 상으로 보고 자료를 작성

제4장 주요 통계항목에 대한 전산지원

할 경우, 해당 자료의 발생 시점과 발생 자료의 색인 번호를 보고 시 인용 형태로 밝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보고 자료의 정오 판정과 비교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 사업 프로세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료가 생성되지 않고, 외부 조사 자료나 사업 관련 자료를 입력할 경우에는 사업 담당 부서장과 통계, 지표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두어 자료의 잘못된 입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